

전략조사 보고서

WTO 중국시장을 꼭 잡아라

- 홍콩 · 상하이 · 싱가포르 활용을 통해 -

2001. 2.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홍콩한국무역관

머 리 말

KOTRA 홍콩한국무역관은 지난 가을 홍콩의 중계무역기능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홍콩 재수출시장을 꼭 잡아라』 제하의 전략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홍콩을 경유한 우리 상품이 어디로 재수출되고 있는지, 어느 나라 어떤 상품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유망한 재수출품목은 무엇인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오프라인 업체로부터 B2B 전자상거래 업체에 이르기까지 보고서를 발간한 무역관으로서도 미처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업계의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직접 배포해드린 자료와는 별도로 KOTRA 홈페이지에 나타난 업계의 정보 조회 횟수만도 4천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홍콩한국무역관은 이번에 『WTO 중국시장을 꼭 잡아라 - 홍콩 · 상하이 · 싱가포르 활용을 통해-』 제하의 전략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 움직임과 함께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상하이와 싱가포르의 이른바 ‘홍콩 추월論’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와 싱가포르의 급부상으로 아시아 비즈니스의 중심지는 이제 홍콩에서 상하이와 싱가포르로 옮겨가지 않겠느냐”, “중국이 WTO에 가입해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에게 있어 홍콩의 의미와 역할은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등의 논의가 바로 ‘홍콩 추월論’입니다.

우리가 ‘홍콩 추월論’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홍콩과 상하이, 싱가포르의 우열(優劣)을 순위매김하고자 함이 아닐 것입니다. 그 보다는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이들 지역이 어떤 경제적 변화를 겪게 되고 우리의 중국 시장 진출전략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적인 변신을 해야하는지를 모색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의 어느 한쪽에 편중된 시각을 최대한 지양하고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이들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분석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이들 세 지역을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 발간에 즈음하여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WTO 가입으로 시장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문(門)은 우리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EU, 일본은 물론, 우리의 직접 경쟁상대인 대만과 동남아 각국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빗장이 열리게 됩니다. 과거 중국이 폐쇄된 환경에서 우리를 한발 앞섰던 경쟁국들은 이제 개방된 환경에서는 몇 발짝 더 앞서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로서는 상하이와 싱가포르의 급속한 발전으로 홍콩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 보다는 종래 유일하다시피한 대중국 진출창구(홍콩)가 이제는 다원화(多元化)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적합한 활용전략을 세워 Post-WTO 시대의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정확한 상황판단에 기초한 발전적이고도 전향적인 진출전략 수립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WTO 시대 우리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동안 자료수집과 보고서 작성에 수고한 홍콩한국무역관 정보조사담당 박한진 과장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보고서 내용중 일부는 상하이한국무역관과 싱가포르한국무역관의 자료를 참고했음을 밝혀 둡니다.

2001년 2월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홍콩한국무역관 관장 성 기 룡

목 차

요 약	i
1. 홍콩 - 싱가포르 - 상하이의 경제특성	2
가. 홍콩 VS 싱가포르 VS 상하이 : 경제규모 비교	2
나. 중국과의 연계성	10
2. WTO 시대의 중국경제와 파급영향	20
가. WTO 가입과 중국의 得失	20
나. 홍콩에 미치는 영향	33
다. 싱가포르에 미치는 영향	37
라. 상하이에 미치는 영향	39
3. 홍콩 - 싱가포르 - 상하이 활용방안	46
가. 전략적 고려	46
(1)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46
(2) 한국과 홍콩-싱가포르-상하이 관계	50
(3) ‘홍콩 추월論’의 타당성	59
나. 지역별 활용방안	62
(1) 홍콩	62
(2) 싱가포르	64
(3) 상하이	64
부록 : 다국적기업의 중국진출 사례	68

표 목차

[표 1] 홍콩 VS 싱가포르 VS 상하이 : 경제규모 비교	4
[표 2] 홍콩 VS 싱가포르 VS 상하이 : 핵심 발전전략	9
[표 3] 홍콩의 주요국별 교역실적 및 비중	10
[표 4] 홍콩의 대중국 직접투자	11
[표 5] 싱가포르의 주요국별 교역실적 및 비중	13
[표 6] 최근 싱가포르의 대중국 수출입추이	13
[표 7] 싱가포르의 대중국 직접투자	14
[표 8] 상하이의 중국내 경제위상	15
[표 9] WTO 가입후 중국의 산업/업종별 득실(得失) 분석	23
[표10] 중국의 부문별 시장개방 일정	25
[표11] 중국의 WTO 가입이 홍콩에 미치는 영향	35
[표12] 중국의 WTO 가입이 싱가포르에 미치는 영향	37
[표13] 중국의 WTO 가입이 상하이에 미치는 영향	40
[표14] 상하이주재 외국은행 지점 현황	42
[표15]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47
[표16] 최근년도 한국의 對홍콩 교역동향	50
[표17] 한국의 對홍콩 상위 20대 수출상품 구조	51
[표18] 주요 품목별 '대중 직수출'과 '홍콩경유 대중 재수출' 실적비교	52
[표19] 최근년도 한국의 對싱가포르 교역동향	53
[표20] 한국의 對싱가포르 상위 20대 수출상품 구조	54
[표21] 최근년도 한국의 상하이항 경유 교역동향	55
[표22] 한국의 상하이항 경유 상위 20대 수출상품 구조	56
[표23] 한국의 지역별/업종별 해외투자진출 현황	58
[표24] '홍콩 VS 상하이', '홍콩 VS 싱가포르' 관계발전 전망	61
[표25] AIG의 중국진출 현황	69
[표26] CALTEX의 중국진출 현황	70
[표27] KODAK의 중국진출 현황	71

요 약

이 자료는 최근 급부상중인 싱가포르와 상하이의 ‘홍콩 추월論’에 착안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지역을 활용한 WTO 시대 중국시장 진출전략을 도출해낸 전략조사 보고서다.

제 1장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의 경제특성을 ‘부문별 경제규모 비교’와 ‘중국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살폈다.

홍콩은 무역 및 투자규모, 외국기업 진출현황, 증시, 벤처캐피털, 외환보유고 등 교역, 금융,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여전히 싱가포르와 상하이를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이테크부문을 포함한 제조업분야에서는 싱가포르와 상하이가 우세를 보였고 특히, 공신력있는 국제기관의 국가경쟁력 비교에서는 싱가포르가 홍콩을 크게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교역, 투자,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살펴본 중국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홍콩이 단연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중국보다는 동남아지역과의 연계가 강했다. 상하이는 1인당 GDP, 1인당 가처분소득, 1인당 소비성 지출에서 중국내 각 성시(省市)중 수위(首位)에 올라 있고 외국기업의 중국지역본부 및 유통중심지로 급부상한 것으로 나타나 화동(華東)경제권의 중심지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제 2장에서는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중국의 변화가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전망했다. 중국의 시장개방 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리했다.

중국은 WTO 가입후 무역(수출 및 수입)과 투자유치실적이 동시에 증가하고 서비스업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본 및 기술집약분야에서는 외국기업이, 노동집약분야에서는 중국이 각각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손실보다는 이득이 클 것으로 평가되지만 외국인직접투자가 기대수준 만큼 늘지않고 수입관세 인하이후 업체간 수입경쟁이 격화된다면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물가관리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

홍콩은 중단기적으로 대중국 중계무역과 역외무역이 늘어나고 중국내 서비스시장 진출기회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홍콩 제조업체의 90%가 광둥성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등지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WTO 가입이후 중국 제조업체들이 이득을 얻게 되는 부분은 홍콩 제조업체들도 똑 같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계무역기능 약화와 산업구조조정 압력가중 등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싱가포르는 홍콩과 비교해 중국과의 연계성이 크지 않아 중국의 WTO 가입이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대중국 IT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중국내 금융·통신분야 진출이 확대될 것이나 다국적기업의 중국업무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싱가포르주재 다국적기업 중 일부가 홍콩 또는 상하이로 이전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상하이는 WTO 가입으로 인한 개방의 당사자이자 외국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장이라는 측면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와는 다른 차원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서비스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전되고 물류·유통허브(Hub) 및 금융센터 기능이 강화되며 거대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기술집약형 제품을 중심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상하이 시장내 각국간 경쟁격화로 인해 WTO 가입초기에 시장질서 문란 가능성과 함께, '성장'과 '시스템'간의 괴리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3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홍콩-싱가포르-상하이를 활용한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으로써 우선,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에 미치게 될 영향을 전망하고 한국과 홍콩-싱가포르-상하이의 무역·투자관계를 살피는 한편, '홍콩 추월論'의 타당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WTO 가입이후 한국은 중국시장 접근기회가 확대돼 대중 수입보다는 전자전기 등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대중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조업 일변도의 대중투자 구조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시장내 각국간 경쟁격화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와 함께 중국내 한국 투자업체가 제조한 저가 공산품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는 부메랑효과도 우려된다. 특히, 중국이 WTO 가입초기에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사소한 문제로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한-중 마늘분쟁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국은 홍콩-싱가포르-상하이와의 무역관계에 있어 최대 흑자시장인 홍콩과는 기본적으로 중계무역에 기초하고 있고 최근 IC, 석유·역청유, 송신기기, 스틸렌중합체 등의 대홍콩 수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홍콩 중계상이 취급하는 한국상품중 약 80%가 중국으로 재수출되고 있고 이 같은 홍콩의 한국상품 중계무역기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싱가포르 수출에서는 최근 IC, 컴퓨터부품 등의 실적이 늘고 있으나 석유·역청유 등은 감소추세이며 이들 제품이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상하이는 한국의 대중 교역의 18.6%가 상하이항을 경유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화학제품과 의류 원부자재 등 저부가가치 품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한국의 각 지역별 투자에 있어서는 대홍콩 투자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현상으로는 상하이와 인근 江蘇·浙江省에 한국기업의 대형 건설·제조업 프로젝트 기회가 많다는 점이다.

‘홍콩 추월論’과 관련, 최근 상하이와 싱가포르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내 홍콩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상하이는 서비스기능(시스템과 인프라) 측면에서 아직 홍콩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중국정부가 금융산업 개방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함에 따라 상하이가 향후 예상가능한 단기간내 홍콩을 추월 (또는

그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중국정부는 앞으로 홍콩은 국제금융 및 무역센터로써 기능하도록 하고 상하이는 국내 물류 및 자금센터로 육성할 것으로 보여 홍콩과 상하이는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상호보완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산업구조 및 지리적 요인에 따른 중국과의 연계성이 크지 않아 중국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며 최근 아세안블록내 자유무역지대 창설 논의 진전으로 동남아지역의 확고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홍콩과 싱가포르도 경쟁에 기초하기 보다는 시장분할관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각 지역별 경제특성을 고려한 중국시장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하겠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각 지역별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1) 홍콩

홍콩의 중계무역기능은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으로써 신규 유력 중계무역상 발굴 및 이들과의 연계강화 노력이 요청된다. 홍콩경유 대중국 재수출이 유망한 품목은 ▷전기전자 제품과 부품류 ▷보일러·기계류 ▷플라스틱류·화학제품 ▷게임소프트웨어 ▷시계류 ▷전화기·팩스기 ▷음료·주류 등 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기업들은 중국내 판매망 구축에서 절대 열세인 만큼 홍콩 중계무역상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국시장 공동진출을 강화하고 최근 홍콩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歐美 중견기업과의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하겠다.

홍콩은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는 점에도 착안해야 하겠다. 고급 수입원자재 사용비율이 높은 경공업형 가공무역업과 IT 산업 부문의 대중국 진출은 현지 산업여건을 고려할 때, 상하이 축의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보다는 주강삼각주의 환경이 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동차 및 부품, 의약, 목재가공, 소프트웨어, 광전자산업, 환경보호산업 등은 광저우(廣州) 및 선전(深圳) 등의 집중 육성산업으로써 홍콩을 거점으로 한 투자진출이 유망한 분야다.

한편, 홍콩은 여전히 중국내에선 수집이 어려운 각종 경제무역정보가 신속히 파악되고 있고 특히, 가공무역정책 관련 정보는 중국전역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는 점을 감안해 홍콩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중국과의 직접 연계성이 크지 않아 싱가포르를 활용한 중국진출 가능성은 사실상 미미해 동남아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는데 주력해야 하겠다.

앞으로 중국에는 경쟁력을 갖춘 각국 기업들이 모여드는 반면, 싱가포르의 배후 생산기지인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는 저급기술제품의 생산기지로 특징지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형성이후의 이 지역내 관세감면 등의 이점을 고려해 국내 저급생산라인을 동남아 각 지역으로 이전하고 동남아시아의 코디네이터(coordinator)로서의 싱가포르 활용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생산라인 이전시 최우선 고려요소는 최근 싱가포르의 대동남아 재수출이 증가하는 품목과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3) 상하이

상하이와 인근 화동(華東) 지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산업과 소비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어 종래와 같은 재고품 수출 또는 사양산업 이전을 지양하고 첨단제품(산업)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하겠다.

최근 2 3년내 대상하이 수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IC 등 전자부품과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전망이 밝고 전자재도 홍콩을 경유하는 화남권(華南圈) 보다는 상하이 루트의 화동권(華東圈)이 보다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투자진출에서는 정보, 금융, 무역, 자동차, 기계설비, 환경보호분야 등 상하이의 집중육성 산업분야가 유망하다. 이와 함께, 상하이 등 화동권은 화남권보다 대형 건설프로젝트가 많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통시장 진출노력도 강화해야 하겠다. 기진출해 있는 외국계 대형 유통 업체에 납품을 추진하며 이와는 별도로 국내 대기업 차원에서 현지 유통망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은 납품하는 협력체제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홍콩기업들이 중서부 내륙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상하이는 중국정부가 서부내륙을 개발하는 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서부내륙 진출가능성을 타진중인 기업이라면 화남권보다는 상하이 측의 화동권에 우선적으로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 홍콩 - 싱가포르 - 상하이의 경제 특성

1. 홍콩 - 싱가포르 - 상하이의 경제 특성

홍콩과 싱가포르, 상하이에 대해선 종래 개별적인 정보와 자료는 많았으나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이들 3개 지역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보고서는 거의 없었다.

제 1장에서는 우선, 최신 통계자료를 이용해 홍콩-싱가포르-상하이의 경제 규모와 현황을 비교하고 중국과의 연계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경제특성을 파악한다. 1) [표 1] 참조

가. 홍콩 VS 싱가포르 VS 상하이 : 경제규모 비교

인구, 면적

‘99년 현재 인구는 홍콩 676만명, 싱가포르 322만명, 상하이 1,311만명으로 써 싱가포르의 인구를 1로 할 때, 홍콩과 상하이가 각각 약 2.1과 4.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면적은 홍콩 1,076 km², 싱가포르 648 km², 상하이 6,340 km²다. 같은 해 서울특별시의 인구와 면적은 각각 1,026만명과 605 km²다.

GDP(국내총생산)

‘99년 기준 각 지역별 GDP는 홍콩 1,581억 달러(미화 기준; 이하 동일), 싱가포르 849.5억 달러, 상하이 487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각각 23,530달러, 21,817달러, 3,720달러 등이다.(싱가포르 1인당 GDP는 평균환율 환산금액)

1) 3개 지역의 통계수치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지역별로 통계산출 방식이 서로 다를수 있고 발표시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통계수치상의 혼란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표 1] 아래 부분에 별도 설명과 함께 자료원을 밝혀두었다.

1인당 PPP GDP(구매력평가기준 GDP)는 싱가포르가 27,024달러로 20,939달러의 홍콩보다 6,000달러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상하이는 자료없음)

최근 3개년간 GDP 성장률은 홍콩이 -5.3%('98)→3.1%('99)→10.0%(00 추정치), 싱가포르가 0.4%('98)→5.4%('99)→9.5%(00 추정치)였고 같은기간 상하이는 10.1%→10.2%→10.8%의 고도성장을 지속했다.

'99년도 산업별 GDP 구성에서는 홍콩이 0.1%(1차 산업)-14.3%(2차 산업)-85.6%(3차 산업)로 서비스업 일변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율이 각각 33.9%와 53.8%로 나타났다. 상하이는 각각 2.0%(1차), 48.4%(2차), 49.6%(3차)의 비율을 보였으나 2000년에 3차 산업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고 상하이시 정부가 최근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자체 산업생산(특히 전자, 화학)에 힘입어 아시아 금융위기중에도 마이너스성장을 모면했으나 3차 산업 일변도로 자체 생산기반이 거의 없는 홍콩은 금융위기의 당사국이 아니면서도 급속한 경기하강을 겪었고 회복속도도 매우 완만했다.

대외교역

대외교역규모('99년)는 홍콩 3,515억 달러, 싱가포르 2,256억 달러, 상하이(상하이항 경유 교역총액) 761.51억 달러로써 상하이를 1로 할 때, 싱가포르와 홍콩이 각각 2.9와 4.6의 비율로 나타났다. 재수출 비중은 홍콩이 87.4%로 단연 높고 싱가포르는 약 40%선이다. 2)

홍콩의 주요 교역대상국은 중국-미국-일본-대만-싱가포르-한국-영국 등의 순이며 이중, 중국의 비중이 38.6%에 달한다. 싱가포르의 주요 교역대상국은 미국-말레이시아-일본-홍콩-태국-중국-대만 순이며 이중 최대 재수출대상지역은 인접 동남아국가들이다. 상하이는 일본-미국이 최대 교역대상국이며 홍콩-한국-독일-프랑스-싱가포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2) 상하이에 대해선 재수출 통계가 없다. 다만, '상하이항 경유' 교역총액에서 '非상하이' 소재기업들의 교역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선인데 이는 물론, 홍콩과 싱가포르의 재수출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표 1] 홍콩 VS 싱가포르 VS 상하이 : 경제규모 비교

구 분	홍 콩	싱 가 포 르	상 하 이
인 구 ('99)	676 만명	322 만명	1,311 만명
면 적 ('99)	1,076 km ²	648 km ²	6,340 km ²
GDP	US\$ 1,581억	US\$ 849.5억	US\$ 487억
· 성장률('98→'99→00)	· -5.3→3.1→10.0	· 0.4→5.4→9.5	· 10.1→10.2→10.8
· 1인당 GDP('99)	· US\$ 23,530	· US\$ 21,817	· US\$ 3,720
· 1인당 PPP GNP('99)	· US\$ 20,939	· US\$ 27,024	-
산업별 GDP 구성('99)	1차 산업 0.1% 2차 산업 14.3% 3차 산업 85.6%	2차 산업 33.9% 3차 산업 53.8% 기타 12.7%	1차 산업 2.0% 2차 산업 48.4% 3차 산업 49.6%
총교역액('99)	US\$ 3,515억	US\$ 2,256억	US\$ 761.51억
· 총수출	· US\$ 1,729.5억	· US\$ 1,146억	· US\$ 442.88억
- 자체수출	- US\$ 218.7억	- US\$ 686억	-
- 재수출	- US\$ 1,510.8억	- US\$ 460억	-
* 재수출비중	* 87.4%	* 40.1%	-
· 수입	· US\$ 1,785.5억	· US\$ 1,110억	· US\$ 318.62억
· 무역수지	· US\$ - 56.0억	· US\$ 36억	· US\$ 124.26억
· 주요 교역대상국	· 중국-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영국	· 미국- 말레이시아- 일본- 홍콩- 태국- 중국- 대만	· 일본- 미국- 홍콩- 한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 주요 수출품목	· 전자전기, 완구, 의류, 섬유직물,	· 전자전기, 컴퓨터, 유류제품	· 의류, 악세서리, 방직, 기계설비
· 주요 수입품목	· 전자전기, 의류, 섬유직물, 완구	· 전자부품, 컴퓨터, 및 부품, 원유	· 기계, 운수설비, 원자재, 화학제품
· 교역특징	· 재수출의 34%가 중국으로 유입. 중국 대외교역의 40%가 홍콩경유.	· 총수입중 재수출 비중이 약 40%선. 최대 재수출대상 지는 동남아권.	· 중국 대외교역의 10.7% 담당. 중국 최대의 컨테 이너화물 처리항.
FDI ('99.당해년도)	US\$ 231억	US\$ 70억	US\$ 31.60억
해외투자('99.당해년도)	US\$ 199억	US\$ 39억	US\$ 0.62억
외국기업 진출현황	12,868개('99.누계)	10,993개('99.누계)	약6,000개('99.누계)
· 특기 사항	· 지역본부/ 지역 사무소 3,001개 · 다국적기업 1천개 · 세계 100대 은행 중 79개 진출	· 다국적기업 850개 (그중 100여 개사가 아태지역본부) · Fortune 500대기업 중 350개 진출	· 中 각 지방정부의 駐上海기업 107개, 사무소 323개 · 외국금융기관 71개 (2000년말)
세계 500대 華商기업	123개 (2000년)	55개 (2000년)	-
· 주식시가 총액	US\$ 2,240.42억	US\$ 517.73억	-

구 분	홍 콩	싱 가 포 르	상 하 이
증 시 (2000년)			
교역소	HKEX	SES	上海證券交易所
· 상장사 숫자	· 736개	· 388개	· 572개
· 주식시가 총액	· HK\$ 47,951.50억 (US\$ 6,147.63억)	· S\$ 3,895.16억 (US\$ 2,250.24억)	· RMB 26,930.86억 (US\$ 3,252.79억)
· 일일평균 거래액	· HK\$ 123.38억 (US\$ 15.82억)	· S\$ 6.12억 (US\$ 3.54억)	· RMB 131.27억 (US\$ 15.86억)
제 2증시	GEM	SESDAQ	-
· 상장사 숫자	· 54개	· 92개	-
· 주식시가 총액	· HK\$ 672.90억 (US\$ 86.27억)	· S\$ 39.86억 (US\$ 23.03억)	-
· 일일평균 거래액	· HK\$ 3.41억 (US\$ 0.44억)	· S\$ 0.27억 (US\$ 0.16억)	-
벤처캐피털 펀드수('99)	165개	85개	52개
· 자금규모	· US\$ 212.03억	· US\$ 77.91억	· US\$ 37.35억
외환보유고	US\$ 1,075억(00.12)	US\$ 781억 (00.11)	US\$ 1,656억(00.12)
환율 (per US\$ 1)	HK\$ 7.796 (00.12)	S\$ 1.731 (00.12)	RMB 8.2786 (00.10)
관광객 수('99)	1,070만 명	696만 명	166만 명
물가상승률('98→'99)	2.8% → -4.0%	-0.3% → 0.0%	-4.9% → -2.7%
실업률('98→'99)	4.7% → 6.2%	3.2% → 3.5%	2.9% → 3.1%
국가경쟁력 순위(2000)			
· IMD	14위	2위	31위(중국전체순위)
· WEF	16위	9위	44위(중국전체순위)
경제자유도 순위			
· Heritage Foundation	1위(2000년)	2위(2000년)	114위(00;중국 전체)
· Fraser Institute	공동 1위('97)	공동 1위('97)	75위('97)
아시아 비즈니스센터			
· PERC	2위(2000년)	1위(2000년)	6위(2000년)
국제 회의/ 전시회 개최	연간 약 500회	연간 약 170회	연간 약 170회
핵심 발전전략(목표)	NEW ECONOMY (아시아 Hb 유지)	INDUSTRY 21 (21C. 지식기반경제)	종합경쟁력 제고 (선진국형 도시건설)
· 중점 추진(육성)분야	· 비즈니스. 물류센터 하이테크산업	· 비즈니스. 물류센터 하이테크산업	· 비즈니스. 물류센터 하이테크산업

주 : 1.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싱가포르 달러 수치를 대미불 평균환율로 환산함.

: 2. PPP GNP는 구매력평가기준 GNP(purchasing power parity GNP).

: 3. 상하이의 교역실적은 '상하이항 경유' 교역실적임.

: 4. 상하이의 벤처캐피털과 외환보유고 수치는 중국 전체 기준임.

: 5. 싱가포르와 상하이의 국제회의/ 전시회 수치는 각 무역관 보고수치 참고.

자료원 : 홍콩통계처, 홍콩무역발전국, 싱가포르 무역개발청(STDB), UN WORLD
INVESTMENT REPORT, 상하이 통계국 外

주요 교역품목은 홍콩이 전자전기제품 및 부품, 완구, 의류, 섬유식품 등이
고 싱가포르의 전자전기, 컴퓨터 및 부품, 유류 등이다. 상하이에는 의류 및
방직품, 기계설비(수출), 원부자재, 기계설비, 화학제품(수입) 등이다.

투 자

UN WORLD INVESTMENT REPORT에 따르면, '99년(당해년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 Inward) 유치실적은 홍콩이 231억 달러, 싱가포르 70억
달러이며 같은기간 해외직접투자(Outward)는 홍콩 199억 달러, 싱가포르 39
억 달러로 홍콩이 싱가포르를 각각 3배와 5배이상 앞서고 있다. 상하이시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의 외자유치와 해외투자 실적은 각각 3.16억달
러와 0.62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어 투자역량은 아직 홍콩과 싱가포르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99년말 현재 홍콩에는 총 12,868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있고 이중 다국적
기업 약 1천개를 포함, 3,001개의 지역본부와 지역사무소가 운영중이다. 3)
또, 자산기준 세계 100대 은행중 79개가 홍콩에 진출해있다. 싱가포르주
재 외국기업은 다국적기업 850개(그중 100여개사는 아태지역본부)를 포함해
10,993개에 달하며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중 350개사가
영업중이다. 상하이주재 외국기업은 6천개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되며 2000
년말 현재 71개의 외국계 금융기관이 지점 또는 사무소 형태로 진출해있다.
특히, 중국내 각 지방정부의 상하이주재 기업과 사무소가 각각 107개와 323
개에 달해 상하이가 대외접촉의 주요 창구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0년 6월말 기준 세계 500대 화상(華商)기업중 홍콩소재 기업은
123개(주식시가 총액 US\$ 2,240.42억), 싱가포르소재 기업은 55개(주식시가총
액 US\$ 517.73억)로 각각 나타났다.

3) 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는 홍콩과 아태지역내 다수의 현지법인과 사무소를 실질
적으로 관장하면서 모기업의 일상적 업무지시를 받지않는 기업이며 지역사무소
(Regional Office)는 홍콩 및 역내 법인.사무소 관장기능은 수행하지만 모기업의 일상
업무지시를 받는 기업을 말한다. 홍콩내 지역본부와 지역사무소는 '99년 2,490개에서
2000년엔 3,001개로 1년새 무려 511개나 늘어났다. 이는 중국의 WTO가입을 앞두고 특
히, 일본과 구미(歐美) 중소기업들이 교두보확보 차원에서 대거 홍콩으로 몰려들었기 때
문이란 것이 홍콩정부의 분석이다.

증시, 벤처캐피털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각 지역별 증권교역소 상장사는 홍콩이 736개로 가장 많고 싱가포르가 그 절반수준인 388개, 상하이는 572개를 기록하고 있다. 전종목 주식시가 총액은 홍콩(HKEX)이 US\$ 6,147.63억이며 싱가포르(SES)와 상하이(上海證券交易所)가 각각 그 37%(US\$ 2,250.24억)와 53%(US\$ 3,252.79억)선에 달하고 있다.

한편, 메릴린치증권이 발표한 세계 38개국 증시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상하이 증시(B株)는 2000년 한해동안 지수상승률 136.6%를 기록해 최고의 상승률(세계 1위)을 보인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각각 13.1%와 23.7%의 하락률로 각각 22위와 30위에 그쳤다. 4)

제 2증시에서는 홍콩 GEM이 상장사 54개, 시가총액 US\$ 86.27억, 일일 평균 거래액 US\$ 0.44억이며 싱가포르 SESDAQ는 상장사 92개, 시가총액 US\$ 23.03억, 일일평균 거래액 US\$ 0.27억을 기록해 상장사 숫자는 싱가포르가 많으나 자금규모면에서는 홍콩이 크게 앞서있다.(상하이는 관련자료 없음) 5)

벤처캐피털의 펀드규모('99년 기준)에서는 홍콩이 165개 펀드, US\$ 212.03억으로 일본(221개 펀드, US\$ 217.29억)에 이어 아시아 제 2위에 올랐고 싱가포르는 85개 펀드, US\$ 77.91억으로 자금규모면에서 홍콩의 36.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국은 52개 펀드, US\$ 37.35억에 불과해 아직은 벤처캐피털이 초보단계임을 알 수 있다.(상하이만의 관련 자료는 없음) 산업 및 업종별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홍콩은 통신(16.4%)-소비재(13.9%)-인프라스트럭처(13.2%)가 대종을 이루고 있고 싱가포르는 통신(15.8%)-IT(15.0%)-전자(14.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프라스트럭처(22.3%)-소비재(11.7%)의 비중이 높아 각 지역별 산업구조 또는 수요(demand)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 4) 그러나, 증시성과 분석자료는 1년간의 주가등락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전체 증시의 시스템과 개방도,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 결과만을 근거로 상하이가 이미 국제금융시장의 전면에 떠올랐다고 볼 수는 없다.
- 5) 중국은 당초 2000년 연말을 목표로 하이테크업종 위주의 제 2증시 발족을 추진했으나 NASDAQ을 비롯한 세계적인 증시폭락에 영향을 받아 2001년에도 제 2증시 발족가능성은 미지수다.

외환보유고, 환율

2000년 12월말 현재 홍콩의 외환보유고는 US\$ 1,075억으로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제 3위에 올라있고 싱가포르의 US\$ 781억(2000년 11월 기준)으로 7위 수준이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에 따르면, 홍콩의 외환보유고는 화폐유통량의 8배, 홍콩달러 통화공급량(M3)의 42%로써 세계 최고수준이다. (상하이만의 관련자료는 없음)

한편, 1990년대 이후 무공해(無公害)산업으로 각국의 주요 외화수입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부문에서는 '99년도 각 지역별 내방 관광객 숫자가 홍콩 1,070만명, 싱가포르 696만명, 상하이 166만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가상승률, 실업률

홍콩의 물가상승률은 '99년에 -4.0%를 기록한데 이어 연간 약 10%의 성장이 추정되는 2000년에도 1 11월중 지표가 -3.8%로 여전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8년에 -4.9%의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기록했던 상하이는 '99년에 -2.7%로 현저히 개선됐으나 2000년에도 디플레이션 국면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싱가포르의 물가상승률은 '98년 -0.3%, '99년 0.0%로 물가관리측면에서 가장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실업률은 홍콩이 '98년과 '99년에 4.7%와 6.2%로 높아진 후 2000년 1 11월 현재 4.6%를 기록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3.2%('98)-3.5%('99)-2.5%(2000. 9월)로 완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하이의 실업률은 2.9%('98)-3.1%('99)로 공식 발표됐으나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이른바 '샤강'(下崗) 근로자들을 감안할 경우, 2000년말 현재 실제 실업률은 최소 6 7%선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경쟁력, 경제자유도

IMD의 2000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싱가포르는 세계 제 2위에 오른 반면, 홍콩과 중국은 각각 14위와 31위에 그쳤다. WEF 국가경쟁력 비교에서도 싱가포르가 9위로 홍콩(16위)과 중국(44위)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상하이만의 관련 자료는 없음)

Heritage Foundation이 발표한 2000년 국별 경제자유도 순위에서는 홍콩이 1위, 싱가포르가 2위, 중국이 114위를 각각 기록했다.(상하이만의 관련 자료는 없음) 또, Fraser Institute의 경제자유도 평가('97년 기준)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75위 수준에 머물렀다.

국제회의/ 전시회

국제회의와 전시회 개최실적에 관해선 공식 통계수치가 없다. 홍콩무역발전국(HKTDC) 자료에 따르면, 홍콩에선 연간 약 500회의 각종 국제회의와 전시회가 개최되며 이중 지명도 있는 국제전시회만 약 60회인 것으로 파악된다. 싱가포르는 2001년 49회의 국제전시회 일정이 정부 웹사이트에 올라 있으나 전체 국제전시회/ 회의는 약 170회로 파악된다. 상하이는 上海市國際展覽公司 주관 국제전시회 연간 약 30 40회를 포함, 170여 개의 전시회가 매년(또는 격년) 개최되고 있다. 상하이에선 또, '99년 Global Fortune Forum이 개최된데 이어 2001년 10월엔 APEC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핵심 발전전략

홍콩과 싱가포르, 상하이의 핵심 발전전략은 모두 비즈니스 및 물류센터, 하이테크산업 육성(및 유치)등을 통한 아시아 Hub를 지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전술측면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 참조

[표 2] 홍콩 對 싱가포르 對 상하이 : 핵심 발전전략

홍콩 : NEW ECONOMY	싱가포르 : INDUSTRY 21	상하이 : 종합경쟁력 제고
<u>Cyber-hub 시스템 구축</u> - 단순 서비스기능 탈피, 고부가가치 창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건설에 총력 · 홍콩디즈니랜드.Cyber Port. E-Commerce 물류센터건설 - 珠江三角洲와의 경제일체화 - 다국적기업의 對中 교역/국제금융센터 기능 강화	<u>21세기 지식기반경제 구축</u> - 지식주도산업의 세계적인 중심지(Global Hub)로 도약 · 전자(1,500개 新프로젝트), 화학.엔지니어링.생명공학.물류부문 등 집중 육성 · 근로자 인력개발 강화 - 다국적기업의 금융.정보화센터 기능 강화	<u>선진국형 국제도시 건설</u> - 양적성장 탈피, 질적 제고로 국제경제의 중심지부상 · 정보.금융.무역.자동차.기계.부동산.석유화학.철강.생물.신소재.환경산업.물류 부문 집중 육성 - 다국적기업 중국지역본부 기능 강화

나. 중국과의 연계성

(1) 홍콩-중국 관계

교역

중국은 홍콩의 최대 교역대상국이다. 홍콩의 대외교역(자체수출+재수출+수입) 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6년 35.8%에서 '97년 36.3%, '98년 37.6%, '99년 38.6%, 2000년(1 11월) 38.9%로 나타나 홍콩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표 3] 참조 또, 2000년 1 11월 기준으로 홍콩 재수출 총액의 35.0%가 중국으로 향했고 홍콩이 취급하는 전체 재수출 상품의 61.1%가 중국산(産)이다. 홍콩 재수출총액(US\$ 1,636.9억)의 무려 96.1%(US\$ 1,573.4억)가 중국과 직접 연계돼 있다는 뜻이다. 6)

[표 3] 홍콩의 주요국별 교역실적 및 비중

(단위 : US\$ 백만, %)

순위	국명	'99	2000. (1 11)				
		총교역	총교역	총수출	자체수출	재수출	수입
1	중 국	135,532 (38.6)	147,664 (38.9)	63,649 (34.4)	6,409 (30.0)	57,240 (35.0)	84,016 (43.2)
2	미 국	53,766 (15.3)	56,389 (14.9)	43,268 (23.4)	6,417 (30.0)	36,850 (22.5)	13,121 (6.7)
3	일 본	30,207 (8.6)	33,398 (8.8)	10,182 (5.5)	602 (2.8)	9,580 (5.9)	23,216 (11.9)
4	대 만	17,101 (4.9)	19,297 (5.1)	4,684 (2.5)	720 (3.4)	3,964 (2.4)	14,613 (7.5)
5	싱가포르	11,848 (3.4)	13,132 (3.5)	4,331 (2.3)	563 (2.6)	3,768 (2.3)	8,801 (4.5)
6	한 국	11,119 (3.2)	12,855 (3.4)	3,350 (1.8)	195 (0.9)	3,155 (1.9)	9,505 (4.9)
7	영 국	10,627 (3.0)	11,088 (2.9)	7,457 (4.0)	1,257 (5.9)	6,200 (3.8)	3,631 (1.9)
총 계		351,502	397,467	185,062	21,365	163,697	194,405

주 : 순위는 총교역 기준, ()안은 국별 비중, 총계는 연도/부문별 홍콩 전체 실적

자료원 : 홍콩통계처, 홍콩무역발전국(HKTDC)

6) 홍콩의 대중국 재수출 구조와 동향에 대해선 홍콩한국무역관의 전략조사 보고서 “홍콩 재수출시장을 꼭 잡아라” 참조. ☎ 다운로드 : www.kotra.or.kr

홍콩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자체수출+재수출)은 전자전기제품 및 부품, 섬유직물, 기계류, 플라스틱류 등이며 수입품(제 3국 재수출 포함)은 전자전기, 완구, 가죽제품, 신발, 의류, 섬유류 등이다. 대중국 수입중 상당물량은 광둥성 주강삼각주에 집중된 홍콩기업의 투자공장에서 생산된 것이다.⁷⁾

투 자

홍콩은 중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실적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투자국(지역)이다.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 통계에 따르면, 2000년 11월말 누계기준으로 중국내 외국인직접투자액(누계)은 계약기준으로 US\$ 6,623.84억, 실행기준으로 US\$ 3,438.71억이며 이중 각각 49.15%(US\$ 3,255.34억)와 49.13%(US\$ 1,689.35억)가 홍콩기업들의 투자실적이다. 중국내 총 361,238건의 외국인 투자프로젝트 가운데 191,143건(52.91%)이 홍콩 투자자들과 연계돼 있고 홍콩무역발전국(HKTDC) 자료에 따르면, 157,300명의 홍콩인들이 중국 광둥성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제조업(대부분 가공무역업), 상업, 숙박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표 4] 참조

또, 홍콩의 최대 투자대상지인 광둥성의 경우, 홍콩기업에 근무하는 중국인 근로자만도 이미 500만명을 넘어섰다는 것이 홍콩정부의 추산이다.

[표 4] 홍콩의 대중국 직접투자

구 분	1999		2000. 1 11		1979 2000. 11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프로젝트 수 (건; 승인기준)	5,902	34.89	6,319	32.08	191,143	52.91
투자실적(US\$억; 계약기준)	133.29	32.33	145.77	30.01	3,255.34	49.15
투자실적(US\$억; 실행기준)	163.63	40.58	141.38	39.01	1,689.35	49.13

주 : 비중은 중국 전체 FDI 유치실적내 점유비

자료원 :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

7) 1980년을 전후해 급격한 코스트상승에 직면한 홍콩기업들은 섬유, 신발, 완구, 전자전기 업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중국이전(특히, 주강삼각주)에 나섰다. 홍콩과 중국간 무역 의존도가 결정적으로 강화된 것은 이들 업체들이 중국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반제품을 홍콩을 통해 조달했고 생산된 제품을 홍콩을 통해 해외로 수출한데 힘입은 바 크다.

중국의 대홍콩 투자규모도 홍콩의 대중국 투자실적에 못지않게 활발하다. 중국측 자료에 따르면, 홍콩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98년에 1,800개를 넘어섰고 이들의 자산만도 US\$ 2,05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는 홍콩달러 발권업무를 하고 있는 中國銀行(홍콩은행)과 그 산하 11개 중자(中資)은행들은 자산규모에서 홍콩은행(Hongkong Bank)에 이어 홍콩내 제 2위의 금융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8)

한편, 2000년 12월말 현재 홍콩증시(HKEX) 상장사 736개 가운데 47개 사가 중국기업이며 제 2증시(GEM; 상장사 54개)에도 3개 사가 상장해있다.

인적교류

'99년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홍콩.마카오.대만인 포함) 7,279만 5,600명(연인원)중 6,167만 600명(84.7%)이 홍콩.마카오인이었으며 이 가운데 약 75%가 홍콩인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중국통계연감 2000, HKTDC 참조)

또, 홍콩통계처 자료에 따르면, '99년 홍콩을 방문한 외국인(중국.대만.마카오인 포함) 1,067만 8,000명(연인원 기준) 가운데 중국인이 308만 4,000명(28.9%)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여행(중국.대만.마카오 포함)을 한 홍콩인 5,314만 4,000명중 85%(4,517만 5,000명)가 중국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싱가포르-중국 관계

교역

'99년 기준으로 중국은 싱가포르의 제 8위 수출대상국이자 제 4위 수입대상국이다. 수출입총액 기준으로는 미국-말레이시아-일본-홍콩-태국-대만에 이은 제 7위 교역대상국이다. [표 5] 참조

8) 中國銀行(中銀)은 2000년 12월 14일 中銀 홍콩은행과 산하 11개 中資은행의 합병방안을 공개했다. 이미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이 방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총자산 규모 8천억 홍콩달러(US\$ 1,026억)의 거대 중국계 단일 은행이 홍콩에 들어서게 된다.

[표 5] 싱가포르의 주요국별 교역실적 및 비중

(단위 : US\$ 백만, %)

순위	국 명	'98			'99		
		총교역	수 출	수 입	총교역	수 출	수 입
1	미 국	40,487 (19.2)	21,813 (19.9)	18,674 (18.4)	40,863 (18.1)	21,957 (19.2)	18,906 (16.5)
2	말레이시아	32,416 (15.3)	16,730 (15.2)	15,686 (15.5)	36,254 (16.1)	18,977 (16.6)	17,277 (15.1)
3	일 본	24,214 (11.5)	7,224 (6.6)	16,990 (16.7)	26,990 (12.0)	8,508 (7.4)	18,482 (16.1)
4	홍 콩	12,056 (5.7)	9,212 (8.4)	2,844 (2.8)	11,986 (5.3)	8,800 (7.7)	3,186 (2.8)
5	태 국	9,056 (4.3)	4,205 (3.8)	4,851 (4.8)	10,281 (4.6)	5,036 (4.4)	5,245 (4.6)
6	대 만	8,632 (4.1)	4,738 (4.3)	3,894 (3.8)	10,040 (4.5)	5,591 (4.9)	4,449 (3.9)
7	중 국	8,914 (4.2)	4,060 (3.7)	4,854 (4.8)	9,701 (4.3)	4,008 (3.5)	5,693 (5.0)
총 계		211,297	109,801	101,496	225,637	114,632	111,005

주 : 순위는 '99년 총교역 기준, ()안은 국별 비중, 총계는 연도/부문별 싱가포르 전체실적

: 금액수치는 연도별 평균환율(S\$/US\$ 1) 환산금액 : '98년 1.6736 '99년 1.6949

자료원 : 싱가포르 무역개발청(STDB)

주요 교역대상국별 비중은 미국 18.1%, 말레이시아 16.1%, 일본 12.0%, 홍콩 5.3%, 태국 4.6%, 대만 4.5%, 중국 4.3% 등이다. 싱가포르의 교역대상국 구성에서 특징적인 현상은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 2개국과의 실적만을 더해도 최대 교역대상국인 미국과의 실적을 웃돌만큼 동남아권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재수출에 있어서도 주요 상대는 동남아국가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는 달리 싱가포르의 경우, '98년부터 (대중국)수출은 감소하고 (대중국)수입은 늘어나고 있다. [표 6] 참조

[표 6] 최근 싱가포르의 대중국 수출입추이

(단위 : US\$ 백만, %)

구 분	'97	'98	'99
수 출	4,066(+19.9)	4,060(- 0.2)	4,008(- 1.3)
수 입	5,689(+28.2)	4,853(- 14.7)	5,591(+15.2)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원 : 싱가포르 무역개발청(STDB)

싱가포르의 대중국 최대 수출품은 전자전기류로서 전체 대중국 수출실적의 54.8%를 차지한다. 세부 품목별로는 컴퓨터와 사무기기 부품의 비중이 가장 높다. 전자전기류와 화학원료 및 제품(14.6%), 정유류(9.7%), 음향·광학·계측기기류(9.6%) 등 4대 품목군은 전체 대중국 수출액의 90%선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대중국 주요 수입품은 전자전기류(62.9%), 원부자재(12%), 경공업제품(11.2%) 등이다.

한편, 홍콩도 대중국 전자전기류 수출비중이 가장 높지만 홍콩과 싱가포르는 서로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홍콩의 경우, 중계무역상들이 해외에서 소싱해 중국으로 재수출하고 있는데 반해, 싱가포르는 자체생산 제품을 수출하는 형태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물론, 홍콩과 싱가포르의 산업구조상의 차이에 따른 것이지만 홍콩의 경우,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대중국 중계무역 여건이 우월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투 자

2000년 11월말 현재 싱가포르의 대중국 직접투자금액(누계)은 계약기준으로 US\$ 351.95억(중국 전체실적의 5.31%), 실행기준으로 US\$ 166.56억(4.84%)에 달하고 있다. 투자 프로젝트 규모는 9,047건으로 중국 전체실적(361,238건)의 2.50%를 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홍콩-미국-일본-대만에 이은 제 5위의 대중국 투자국에 올라 있지만 규모면에서는 홍콩에 크게 못 미친다. 프로젝트 수는 홍콩의 4.7%에 불과하고 계약금액과 실행금액도 각각 홍콩의 10.8%와 9.9% 수준이다.

[표 7] 참조

[표 7] 싱가포르의 대중국 직접투자

구 분	1999		2000. 1 11		1979 2000. 11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프로젝트 수 (건; 승인기준)	503	2.97	547	2.78	9,047	2.50
투자실적(US\$억; 계약기준)	22.58	5.48	18.46	3.80	351.95	5.31
투자실적(US\$억; 실행기준)	26.42	6.55	18.36	5.07	166.56	4.84

주 : 비중은 중국 전체 FDI 유치실적내 점유비

자료원 :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

인적교류

‘99년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7,279만 5,600명(연인원)중 홍콩·마카오·대만인과 해외화교를 제외한 순수 외국인은 843만 2,300명이었고 이중 싱가포르인은 35만 2,500명으로써 홍콩인의 중국방문 실적대비 1% 미만 수준이다. 한편, ‘99년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99만 2,000명이었다.(중국통계연감 2000)

(3) 상하이의 위상

상하이는 중국(본토) 영역인 관계로 산업, 소득, 소비, 교역, 투자 부문 등을 중심으로 상하이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8] 참조

[표 8] 상하이의 중국내 경제위상 (1999년 기준)

순 위	GDP (억 元)	1인당 GDP (元)	1인당 가처분 소 득 (元)	소비재 소매 판매액(억元)	1인당 소비 성 지출(元)	총 교 역 (US\$ 억)	외자유치 (US\$ 억)
1	廣東 8,464	上海 30,805	上海 10,932	廣東 3,656	上海 8,248	廣東 1,403	廣東 869
2	江蘇 7,698	北京 19,846	北京 9,183	江蘇 2,394	廣東 7,518	上海 386	江蘇 373
3	山東 7,662	天津 15,976	廣東 9,126	山東 2,310	北京 7,498	北京 344	福建 301
4	浙江 5,365	浙江 12,037	浙江 8,428	浙江 2,076	天津 5,852	江蘇 313	上海 252
5	河南 4,576	廣東 11,728	天津 7,650	遼寧 1,696	重慶 5,444	浙江 183	山東 181
6	河北 4,569	福建 10,797	西藏 6,909	湖北 1,617	西藏 5,309	山東 183	深圳 138
7	遼寧 4,172	江蘇 10,665	福建 6,860	河南 1,616	福建 5,267	福建 176	遼寧 128
8	上海 4,035	遼寧 10,086	江蘇 6,538	上海 1,590	江蘇 5,011	遼寧 137	北京 127
9	湖北 3,858	山東 8,673	雲南 6,909	河北 1,459	雲南 4,941	天津 126	天津 121
10	四川 3,712	黑龍江 7,660	重慶 5,896	四川 1,383	山東 4,515	河北 46	廈門 101
평 균	80,423*	6,517	5,854	31,135*	4,616	3,606*	3,076*

주 : 평균은 중국전체 평균치. 단, * 표시는 중국전체 수치합계. 외자는 실행기준 누계.
 자료원 : 중국통계연감 2000,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

상하이는 1984년 연해개방도시(沿海開放都市)로 편입되고 '90년에 시작된 포동(浦東)지구 개발이후 성장이 가속화돼 최근 9년 연속 두자리 숫자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전자통신설비, 가전, 철강, 석유 화공과 정밀화공, 발전설비 및 부품 등 6대 지주(支柱)산업이 상하이는 물론 전국의 공업성장을 주도했다. 9)

'99년 상하이의 GDP는 4,035억 위안(US\$ 487.36억)으로 광둥성(8,464억 위안; US\$ 1,022.30억)의 약 48%수준이며 전국 GDP총액내 비중은 약 5%선이나 1인당 GDP 기준으로는 중국 최대의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즉, 상하이의 1인당 GDP는 30,805위안(US\$ 3,720)으로 광둥성(11,728위안; US\$ 1,417)의 두 배이상이며 전국 평균치(6,517위안; US\$ 787)보다는 약 4.7배 많다. 10)

1인당 가처분소득에 있어서도 상하이는 10,932위안(US\$ 1,320)으로 북경(9,183위안; US\$ 1,109)과 광둥성(9,126위안; US\$ 1,102)보다 많다. 상하이의 소비재 소매판매총액은 1,590억 위안(US\$ 192억)으로 광둥성(3,656억 위안; US\$ 442억)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1인당 소비성 지출에서는 광둥성을 앞서 전국 1위에 올라있다.

교역규모는 광둥성이 중국전체 교역액(US\$ 3,606억)의 약 39%(US\$ 1,403억)를 차지해 1위이며 상하이(2위)는 US\$ 386억으로 약 10.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11) 상하이항은 '99년도 컨테이너 처리량이 420.6만 TEU로 선전(深圳; 297.8만 TEU), 칭따오(靑島; 154.3만 TEU), 톈진(天津; 130.3만 TEU)을 크게 앞서는 중국내 최대의 컨테이너화물 처리항이다.(홍콩 제외)

9) 상하이 생산 주요 공산품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집적회로:50% ·승용차:40% ·전자제어교환기:30% ·선박:25% ·철강:20% 등으로써 이들 제품의 상당량은 합資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다. 각 업종별로 대표적인 합資기업으로는 ·자동차(上海大衆; 독일 Volkswagen 합자) ·통신(上海Bell; 벨기에 Bell) ·가전(上海素光電子; 일본 Sony) ·발전설비(上海動力設備; 독일 Siemens) 등이다.

10) 2001년 1월 발표된 상하이시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상하이의 GDP와 1인당 GDP는 각각 4,551억 위안(US\$ 550.44억), 34,560위안(US\$ 4,180)으로 나타났다.

11) 그러나, 이 수치는 상하이 소재기업들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상하이항 경우 화물 수출입실적은 약 US\$ 762억으로써 중국 대외교역 총액의 21.3%를 차지한다.

‘99년말 현재 상하이의 외국인투자유치 총액(실행기준)은 US\$ 252억으로 중국 전체실적(US\$ 3,076억)의 약 8.2%를 차지하며 광둥성(US\$ 869억; 28.3%)-강소성(US\$ 373억; 12.1%)-북건성(US\$ 301억; 9.8%)에 이어 제 4위에 올라있다. 또, 외국기업의 중국지역본부 소재지로 급부상하면서 외국기업 숫자는 '99년에 이미 6천개를 넘어섰고 2000년말 현재 각종 형태의 외국계 금융기관만도 71개에 달하고 있다.

유통부문에서는 2000년 현재 상하이에 기반을 둔 유통업체들이 1천 개 이상의 지점망을 상하이시 외곽지역에 설치했다. 중국계 슈퍼체인인 華聯은 상하이와 강소성, 절강성을 중심으로 화동지역에 7백개의 체인점을 운영중이다. 12) 외국 유통업체로는 까르푸가 상하이에 6개 매장을 갖고 있고 매트로는 중국내 11개 매장중 4개를 상하이에 두고 있다.

12) 상하이의 중국계 유통업체는 지난 10년간 집중화·대형화 추세를 보여왔다. 업체 숫자는 수년전 50여 개에서 현재는 20개 정도로 줄었지만 업체별로 체인점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한편, '90년대 비슷한 시기에 유통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광둥성은 현재 약 500개의 유통업체들이 8천여 개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어 업체당 평균 점포수는 16개다. 상하이의 (중국계) 유통업체가 선단식(船團式) 경영을 하고 있다면 광둥성은 개미군단과 같은 형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둥성 유통업체들은 외국 유통업체 못지않게 상하이 유통업체들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대해 일종의 위기감을 느껴 2000년 12월 26일 업계 대표들이 광둥성 둥관(東莞)에서 대책회의를 갖기도 했다.

2. WTO 시대의 중국경제와 파급영향

2. WTO 시대의 중국경제와 파급영향

제 2장에서는 우선,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특징적 변화와 산업별/업종별 득실(得失) 분석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전망해보고 우리 기업의 최대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시장개방 일정을 업종별로 상세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13) 또, 중국경제의 변화가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에는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유리한 요인과 불리한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WTO 가입과 중국의 득실(得失)

(1) WTO 가입이후의 특징적 변화

교역 및 투자 확대

중국은 지난 '99년 타결된 미국과의 쌍무협상에서 WTO 가입후 2004년까지 농산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17%로 내리고 이어 2005년까지는 공산품의 수입관세율을 9.4%로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14)

-
- 13) 중국의 시장개방 일정은 이미 발표됐지만 상당수 우리 기업들이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2000년 3월 14일 공개한 미-중 WTO 쌍무협상 타결안 전문을 중심으로 하고 중-EU 협상 타결안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중국의 업종별 세부 개방일정을 정리했다. 미국이 공개한 협상 타결안 전문은 내용이 방대하고 매우 기술적이어서 여기서는 핵심내용만을 간추렸다. 한편, 중국의 시장개방 일정중 상당 부분은 2000년중 WTO에 가입한다는 가정하에 마련된 것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실제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중국은 WTO 가입이후에도 자국 및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완급(시장개방의 속도와 폭)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중국측의 정책동향과 입장변화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만 한다.
- 14) 중국은 특히, 미국산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율을 14.5% 수준까지 내리기로 합의했다. 한편, 중국은 WTO 가입후 예상되는 자국산업에 대한 충격 완화차원에서 2001년 1월 1일부로 3,462개 품목(전체 품목의 49%)의 관세를 인하해 2001년 1월 현재 관세율 수준은 농산품 19.0% 기계·전자전기 14.3% 경공업제품 14.8% 등을 포함해 전 품목 평균 15.2% 수준이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각종 비관세장벽도 제거됨에 따라 중국의 수입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도 수입 못지않게 증가할 것이다. 홍콩무역발전국(HKTDC)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여행용가방 및 핸드백 판매량의 1/3을 생산하고 있고 완구와 신발·의류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1/4과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 주변기기중 일부는 무려 80%에 달하는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이 높은 점유율은 중국이 구미(歐美) 등 세계시장으로부터 각종 쿼터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WTO 가입 이후 쿼터적용 등 중국산 수입제한 조치들이 해제되면 중국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중국이 특히 기대를 걸고 있는 분야는 2005년에 미국의 대중 쿼터적용이 해제되는 방직품이다. 15)

중국 국무원연구발전중심(國務院研究發展中心)은 앞으로 중국제품의 세계시장 진입여건이 개선되면 중국의 수출이 매년 평균 2.4%씩 추가 성장하고 2005년에는 WTO 미가입 상태와 비교해 수출 증가폭이 18.1%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6)

한편, 관세율 인하와 함께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특히, WTO 가입후 3년 이내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대외무역권이 인정되면 중국의 외자유치 실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재편

중국은 2000년 3/4분기 현재 국내총생산(GDP)내 3차 산업의 비중이 33.9%에 불과해 서비스업이 매우 낙후돼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지난 '97년 발표한 GDP내 서비스업의 비중 비교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

15) 미국은 중국과의 WTO 협상결과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로 미국의 대중 섬유수입쿼터를 해제한다. 미국은 그러나, 중국산 수입방직품이 자국산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WTO 원칙에 관계없이 2005년 1월 1일이후에도 4년간 중국에 대해 쿼터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중국과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방직품의 대미 수출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민감한 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며 중국내 우리 투자기업들의 대미 (방직품)수출도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16)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보수적인 전망치임을 전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각각 12.2%와 14.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 중진국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평균 63%와 52%에 달하고 후진국 평균치는 43%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99년 현재 화남(華南)의 핵심 지역인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의 서비스업 비중이 각각 49.8%와 48.2%였고 상하이도 2000년(全年 기준)에 막 50%선을 넘어선 것을 보면, 서비스업의 후진성을 잘 알 수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통신, 금융, 유통부문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면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지각변동과 같은 대변혁기를 맞게 될 것이고 GDP내 서비스업의 비중도 단기간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중국정부는 물론, 서비스업 개방을 자국 산업의 구조조정과 서비스업의 선진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아 국내산업에 대한 충격은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일례로, 중국개혁발전연구소(中國改革與發展研究所)는 중국에서 서비스업이 1% 성장할 때마다 1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총체적 경제효익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가져다줄 총체적 경제효익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의 전망이 많다. 골드만삭스는 외국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수월해지고 수출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비교우위가 강화되면 WTO 가입 5년 후 외국인 직접투자실적이 두 배로 늘어나고 외국인자본이 투입된 서비스업 종에서만 27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 대외교역 및 외자유치 증가가 경기자극, 구조조정 진전, 실업문제 경감 등으로 이어져 2005년의 경제성장률은 WTO 미가입 상태와 비교해 1.53%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시장개방과 효율성 제고에 따른 성장효과를 감안해 중국은 WTO 가입으로 GDP 수치를 4.1% 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개방의 고통

중국은 미국 및 EU와의 협상결과에 따라, WTO 가입후 5 6년 기간에 걸

쳐 신속한 시장개방을 이행해야 한다. 외국의 상품과 서비스업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개방에 따른 고통이 가중되고 특히, 은행, 보험, 통신, 자동차, 화공, 제약, 농업 등 종래 국가 보호막에 쌓여있던 업종에는 보다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7)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지만 만약 외국인직접투자가 기대수준 만큼 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관세 인하이후 업체간 수입경쟁이 격화된다면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당국의 물가관리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또, 서비스업 종 등의 인력수요가 급증하면서 농업인력이 유실되고 저급(低級)기술 인력의 실업이 늘어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2) 산업별/업종별 득실 분석

WTO 가입이후 예상되는 중국 경제의 각 부문별 득실은 산업별/업종별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표 9] 참조

[표 9] WTO 가입후 중국의 산업/업종별 득실(得失) 분석

중 국 의 득 실 (得失)		得	失	得失 혼재
수출(수입)증가 사유		원료 코스트 인하 ⇒ 중국 수출증가	수입효과 증가 ⇒ 업종별로 차이	수입효과 증가속 중국측 일부 이득
외국 우세	자본집약형 산업	-	보험, 화공, 통신	금융(위안화업무), 항공
	기술집약형 산업	-	자동차, 유통업 기계설비, 화섬, 하이테크, 의약	-
중국 우세	노동집약형 산업	신발, 의류, 완구, 방직, 가전, 피혁, 시계	섬유원료, 장신구 등의 원자재	자동차(부품분야) 여행업
	농업 · 기타 산업	-	농축산물 수입 (육류 등 식품류)	농업유통망(中우세) 목재 · 지류(완제품)

- 17) 중국도 개방확대 이후의 기업도산과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다. 국무원연구발전중심은 2005년에는 1998년과 대비해 농업부문의 일자리가 약 1천만 개 줄어들고 자동차부문의 일자리도 14.5%(49.8만 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수입관세가 인하되면 원자재 및 기계류 수입가격이 내려가고 이는 중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표 9]는 외국기업들이 중국시장에 현지 생산(또는 경영) 체제를 갖춘 이후 중국의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도표화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자본집약형 산업(금융, 보험, 통신, 자동차 등)과 기술집약형 산업(기계설비, 화섬, 하이테크, 의료 등)에서는 중국의 수입증가 효과가 두드러져 외국기업들이 우위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와 금융 등은 외국기업의 우세속에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기업들도 일부 이득을 보는 구조가 예상된다. 자동차부문은 중국내 외국 자동차 회사들의 생산설비 증설로 가격인하 추세가 나타날 것이며 중국 업체들은 전국적인 자동차 보수유지관련 서비스업과 부품공급 측면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은 일반 은행업의 경우, WTO 가입후 5년내 외국기업들의 위안화 업무에 대한 제한조치가 없어지지만 중단기적으로 위안화 대출입무에서는 중국계 은행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외국기업들은 국제결제와 무역금융, 신용카드업 등에서 우위를 보이는 등 시장을 나누어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집약형 산업중 섬유원료는 외국 화섬업체들의 중국진출 확대로 국영 생산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겠지만 중국내 원자재 (수입)코스트 인하효과로 이어져 중국의 완제품(의류) 수출이 증가하는 이중적 효과가 예상된다. 신발, 완구, 가전, 피혁, 시계 등에서는 중국기업들이 수출증가로 인한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농업과 축산분야에서는 중국이 수입제한 조치를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산 밀, 감귤류, 유제품, 육류 등 주요 수입증가 예상품목들이 중국인들의 식생활 습관과는 차이가 있는데다 현재 전국적인 유통망은 중국 국영기업들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기업들로서는 자체 유통망 확보를 위해 대규모 초기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중국측의 피해는 예상 외로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목재와 지류는 원료성 제품으로써 현재 중국의 수입관세율이 12~25%지만 WTO 가입후에는 5~7%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수입이 증가하겠지만 이를 가공해 수출하는 중국기업들로서도 코스트인하 측면에서 이득을 보게될 전망이다.

(3) 중국의 부문별 시장개방 일정 [표 10] (아래 각 부문별 일정)

비관세 장벽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수입허가증 관리(35종 373개 품목)	● WTO가입 5년후 수입허가증제 취소
○ 非정부 구매 기계전자전기제품 입찰 실시(6종 116개 품목)	● 가입 4년후 非정부 구매 기계전자전기 제품 입찰제 취소
○ 수입쿼터관리(28종 245개 품목)	● 가입 5년내 모든 쿼터제 점진 취소

* 중국대외무역경제협작부는 2001년 1월 15일부로 22개 종의 기계전자전기제품에 대해 비관세장벽(쿼터관리, 특정품목관리 등)을 취소함.

관세 장벽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공산품 평균 관세율 17%	● 공산품 관세율 2005년까지 9.4%로 인하
○ 농산품 평균 관세율 19%	● 농산품 관세율 2004년까지 17%로 인하
	● 중국은 WTO가입후 정보통신기술협정(ITA)에 서명하고 ITA 적용품목중 2/3에 대해 2003년 1월 1일까지 관세폐지, 잔여분은 2005년 1월 1일까지 관세폐지
	● 자동차 관세는 현행 80 100%에서 2006년 7월까지 25%로 인하, 같은기간 중 부품은 23.4%에서 10%로 인하
	● 중국은 밀, 옥수수,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 'tariff-rate quota system' 및 'state trading' 적용

투자 조건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외국인 독자.합자기업은 계약서상에 외환수지 균형, 수출/내수판매 비율을 명시, 정부의 심사를 득함	● TRIMs 시행
	● 외환수지균형 요구 폐지
	● 각 지방별 강제요구 규정 폐지
	● 수출의무비율 폐지

대외무역권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외국인투자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는 자사 영업범위내에서만 수출입권 보유, 기타 제품의 수출입 대리권은 불인정	●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WTO 가입 3년이내 점진적으로 대외무역권 부여
○ 상하이(浦東), 선전(深圳)의 합자무역 회사에 한해 각종 제품 수출입권 인정	

유통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도매 ○ 상하이.선전(深圳) 소재 합자무역회사 및 개방 시범도시 소재 합자소매업체에 한해 외국생산제품의 중국내 유통 허용 ○ 외국인기업의 타사제품 도매 금지 ○ 4개 직할시에 한해 외국인 소수지분 합자도매업체 각 1개 사 설립허용 ○ 외국기업의 유통망, 도매점, 창고시설 소유 및 경영 금지 소매 ○ 각 성 성도(省都), 자치구 수도, 직할시, 계획단열시, 경제특구에 한해 합자소매업체 '제한적' 허용 ○ 3개 이하 분점보유 합자소매업체의 외국측 지분 65% 허용. 분점 3개 초과 시에는 중국측 다수 지분 요구 ○ 합자소매업체의 도매업 가능(별도 승인건) 프랜차이즈 ○ 1998년 4월부터 내외자(内外資)기업의 직판(direct sales) 금지	도매 ● 외국기업의 식염, 연초 도매업은 불용 ● 2005년 1월 이전 합자기업의 화학비료, 석유제품, 원유 유통 허용. 2003년 1월 이전 서적, 신문, 잡지, 약품, 살충제, 제초(除草)필름 유통 허용 ● 2002년 1월 이전 합자기업의 외자 다수 지분 허용; 유통업체 진출지역 및 수량 제한 폐지 ●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내 제조상품 유통 및 관련 서비스 제공 허용 ● 외국서비스업자의 유통상품 관련 서비스 전면 허용(A/S 포함) 소매 ● 연초(煙草)는 개방대상에서 제외 ● WTO가입후 5개 경제특구, 北京, 上海, 天津, 廣州, 大連, 青島, 鄭州, 武漢에 합자소매업체 허용 ● 北京, 上海는 합자소매업체 4개 이하 허용. 기타 도시는 2개 이하로 제한 ● 北京소재 합자기업 2개사의 北京내 분점설치 허용 ● 2002년 1월 이전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및 각 성 성도(省都), 重慶, 寧波에 합자소매업체 허용 ● 2003년 1월 이전 소매유통업의 지역, 수량, 주식보유비율 제한규정 폐지 ● 외국 유통업체 점포면적 20,000s/m 미만 제한규정 폐지(中-EU 타결안) 프랜차이즈 ● 2003년 1월 이전 모든 제한규정 폐지 ● 향후 직판활동 관련 조례·규정 제정시 WTO 회원국들과 논의

운송 및 관련 서비스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화물운송대리 ○ 외국측 지분율 50% 미만으로 제한 ○ 극히 제한적·예외적 범위내에서 외국인 단독투자업체 설립 허용 ○ 합자기업 설립허용지역 제한 ○ 절대다수 합자기업은 국제화물운송 영업만 허용되고 극소수만이 국내화물 운송영업 가능 항공기 정비 ○ 합자기업내 외국측 소수지분만 허용	철도·도로 운송 ● WTO 가입과 동시에 외국측 소수지분 합자기업 허용 ● 2003년 1월 이전 외국인독자 도로운송 업체 설립 허용. 2006년 1월 이전 외국인독자 철도운송업체 설립 허용 창고업 ● 가입과 동시에 외국측 소수지분 합자 기업 설립허용 ● 2003년 1월 이전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화물운송대리 ● 외국측 다수지분 점진 허용 ● 2004년 1월 이전 외국유통기업의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 합자기업 설립 1년후 지사설립 허용 (등록자본금 US\$ 12만 추가 요구) ● 합자기업 최초 설립 5년후 합자기업 추가설립 허용 ● (합자기업의 업무범위를 국제운송으로 제한하는 규정 없음) 항공기 정비 ● 합자기업내 중국측의 지배지분 요구 ● 영업허가증은 경제상황에 따라 발급 ● 국내기업과 달리 합자기업은 국제시장 업무 수행 의무 특사운송 ● 외국측 다수지분 점진 허용 2004년 1월 이전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통신, 인터넷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공식적으로 외국기업은 어떠한 형태의 통신서비스업체도 보유(또는 경영)불가	● WTO 경쟁원칙 도입 <u>부가서비스(인터넷 포함)</u> 무선호출 서비스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WTO 가입후 上海, 廣州, 北京에 외자 지분율 30% 초과 합자기업 설립 허용 ● 成都, 重慶, 大連, 福州, 杭州, 南京, 寧波, 青島, 瀋陽, 深圳, 廈門, 西安, 太原, 武漢 등지로 확대하고 외국지분율 49%까지 허용 ● WTO 가입 2년후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지분율 50%까지 허용 이동전화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지분율 25%의 합자기업 설립 점진허용 ● WTO 가입후 1 3년내 대상지역을 기타 도시로 확대하고 외국지분율 허용 범위를 35%로 인상 ● WTO 가입 3년후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지분율 49%까지 허용 국내 및 국제 서비스 ●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지분율 25%의 합자기업 설립 점진허용 ● WTO 가입후 1 3년내 대상지역을 기타 도시로 확대하고 외국지분율 허용 범위를 35%로 인상 ● WTO 가입 3년후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지분율 49%까지 허용 ● WTO 가입후 1 3년내 통신회선 임차 허용, 외국기업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재임대 허용

은행업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대부분 외국계은행은 외국기업과 외국인대상 외환업무에 종사 ○ 일부 외국계은행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외국기업/외국인대상 위안화업무 실시 ○ 외국계은행의 중국기업/중국인대상 영업 금지	● 엄격한 심사관리기준 적용 ●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모든 외국계은행에 대해 위안화업무 허용 ● 2003년까지 23개 도시 개방 ● WTO 가입 5년내 모든 지역 및 고객 제한규정 폐지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외국계 독자/합자은행 설립 허용 ○ 모든 주요 도시에 외국계은행 지점 각 1개 설치 허용(자산 US\$ 200억 이상) ○ 외국계은행의 자회사 설치 허용(자산 US\$ 100억 이상) 위안화업무 ○ (상하이 및 선전 소재) 32개 외국계은행이 위안화 영업허가증 보유 ○ 상하이(上海), 선전(深圳)지역 외국기업/외국인 상대의 제한적인 위안화 영업 ○ 선전소재 외국계은행은 廣東.廣西.湖南 지역 고객상대 영업 가능 ○ 중국내 3년이상 영업기록과 최근 2개년도 흑자경영일 경우에 한해 위안화영업 허가증 신청 가능	● 2005년 1월까지 외국계은행의 소유권, 경영 및 법정형태 등에 관한 제한규정 폐지 ● 중국계은행과 동시에 외국계은행에 대해서도 금융리스업무 허용 ● 비은행 금융회사의 자동차할부금융업무 허용 외환업무 ● WTO 가입후 외환업무의 지역제한규정 폐지 ● WTO 가입후 외국계은행의 중국기업/중국인 대상 외환업무 허용 위안화업무 ● WTO 가입 5년내 위안화업무 지역 제한규정 단계적 폐지 [上海.深圳.大連.天津], [廣州.青島.南京.武漢], [濟南.福州.成島.重京], [昆明.珠海.北京.廈門], [汕頭.寧波.瀋陽.西安] 순으로 폐지 ● WTO 가입 2년내 중국기업, 5년내 일반 가계대상 위안화영업 허용 ● 한 지역에서 위안화영업이 허용된 외국계은행은 다른 개방지역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가능

보험업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10여개 외국계 보험회사가 영업중이나 지역 및 업무영역에 엄격한 제한 ○ 1997년부터는 합자보험회사만 허용(외국인독자보험회사 설립은 극히 제한적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 외국계 보험회사는 상하이와 광저우(廣州)에서만 영업 가능 ○ 각 도시별로 지점 1개 사만 허용	● WTO 가입후 5년내 지역제한규정 폐지, 외국 독자보험회사 설립 허용. 주요 도시 2-3년내 진출 허용, 단체. 건강.연금 등 보험업무 영역 확대 ● 기존 외국 손보사의 전국영업 허용, 향후 외국측지분 51% 허용 ● 재보험 100% 외국인 단독지분 허용 ※ 중-EU간 타결안은 상기 중-미 타결안의 주요 개방일정을 2년 앞당김

증권업 및 자산관리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증권업 ○ 외국계 증권회사는 외국인전용 B株만 거래 가능 자산관리 ○ 외국기업의 자산관리업무 참여 불허	증권업 ● WTO 가입후 3년내 합자증권회사내 외국측지분 33% 허용 ●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국채, 사채 업무 허용 자산관리 ● WTO 가입후 증권투자기금관리 합자기업 설립 허용 (단, 외국측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3년 경과후 49%까지 확대 가능함)

전문 서비스업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법률 ○ 외국계 로펌은 중국법률 관련 업무종사 금지 ○ 아래 지역에 영리성 사무소 설치 가능 : 北京,上海,廣州,深圳,海口,大連,青島,寧波,煙台,天津,蘇州,廈門,珠海,杭州,福州,武漢,成都,瀋陽,昆明 ○ 외국계 로펌의 중국내 사무소는 기업별 1개로 제한 회계 ○ 기존 합자 회계사사무소는 존재하지만 최근 추가 인가사례는 없음 ○ 외국계 회계사사무소는 외국기업 및 해외증시/중국 B증시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가능 ○ 외국인에 대해서도 중국 CPA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인증후 서비스 제공가능	법률 ● 외국계 로펌의 사무소 설치 지역/수량 제한 폐지 ● 외국계 변호사사무소는 중국이외 지역에서 연속 3년이상 영업경험 필요 ● 외국계 변호사는 매년 중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요구 ● 외국계 로펌의 사무소는 중국인 등록 변호사 고용 불가 회계 ● 중국 CPA 자격 획득후 회계사무소 설립 가능 ● 중국 CPA 자격획득 외국인에 대한 내국민 대우실시 ● 외국 회계사무소는 중국 회계사무소와 제휴 가능 ● 본지화(本地化) 요구 강제규정 폐지 도시계획 ● 합자기업내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 외국을 대상으로한 관련서비스에 대해서는 중국 전문단체와 협력 요구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의료서비스(치과 포함) ● 합자 병원 및 진료소 설립 허용 ● 중국의 필요에 따라 합자 의료기관 숫자 제한 가능 ● 의사 및 의료진 대부분은 중국국적자로 구성 ● 외국인 의사는 위생부 허가증 취득후 중국에서 단기적(6~12개월)으로 의료 활동 가능

상업서비스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광고 ○ 합자기업내 외국측 지분 49%로 제한	사무서비스 ● 외국인 다수지분 합자기업 설립 허가, 2005년 이전까지 외국인독자기업 허용 컴퓨터서비스 ● 자격요건 부합 엔지니어 또는 학사학위 소유자로서 3년이상 유경험자에 대해 중국내 서비스업무 허용 ● 하드웨어 인스톨레이션 관련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조치 없음 ●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독자기업을 제외한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허용 부동산서비스 ● 외국인독자기업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관련 업무 허용(단, 호화부동산은 제외) ● 합자기업에 대해 수수료 또는 계약체결 방식의 서비스 허용 광고 ● 2002년 1월이전 외국측 다수지분 인정, 2004년 1월이전 외국인독자기업 인정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기술 테스트 및 분석 서비스, 화물검사 ● 화물검사 서비스에 법정(法定) 화물 검사업무는 미포함 ● 2002년 1월이전 합자기업내 외국측다수 지분 허용. 2004년 1월이전 외국인독자 회사 설립 허용 ● 합자기업의 외국측 파트너에 대해 3년 이상의 영업경험 보유 요구. 합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US\$ 50만 이상

건축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합자기업에 한해 허용 ● 중국건축기업과 합자건축기업에 대한 등록자본금 요구조건은 별도 관리 ● 합자건축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 건축 프로젝트 수주 의무화

시청각 부문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영화 ○ 수익분담원칙에 따라 매년 10편의 외국 영화 수입 영화상영관 ○ 외국인 소수지분 조건하에 영화상영관 설립 허용	영화 ● 수익분담원칙에 따라 매년 20편의 외국 영화 수입 시청각제품 ● 합자기업 설립후 영화를 제외한 시청각 제품 유통 허용

관광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호텔업 ○ 합자기업내 외국측 지분율 25% 이상	호텔업 ● WTO 가입후 외국측 지배지분 허용 ● 2003년까지 외국인 독자호텔 설립 허용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여행사 ○ 합자여행사내 외국측 소수지분 요구 ○ 합자기업의 외국측 연간 매출액 US\$ 5,000만 이상 요구 ○ 합자기업 등록자본금 US\$ 500만 위안 이상 요구 ○ 합자여행사의 영업범위는 중국 국내로 제한하며 해외(출국)여행은 불허	여행사 ● 국가지정 휴양지내 영업 허용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 ● 2003년 1월 이전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 2005년 1월 이전 외국인투자기업 허용 ● 2005년 연말이전 지사설립 제한규정 폐지

기타 서비스

- 교육서비스 :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특수교육을 제외한 기타분야에서 합자학교 설립허용
- 환경서비스 : 합자기업만 허용
- 기타 금융서비스 : WTO 가입후 금융정보·데이터·자문 서비스 허용

나. 홍콩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WTO 가입이 홍콩에 미치는 영향은 ‘도전’과 ‘기회’로 요약할 수 있다. 홍콩업체는 중국의 전방위 개방으로 내수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수입관세 인하로 중국내 생산코스트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구미(歐美)지역간 교역환경이 안정됨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된 홍콩기업 제품의 해외수출도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홍콩은 종래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중계무역기능은 약화되고 홍콩주재 일부 다국적기업들의 ‘홍콩이탈→중국이전’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표 11] 참조

(1) 유리한 요인

해외수출시장 안정

홍콩경제무역상회(香港經貿商會) 자료에 따르면, 홍콩제조업체의 90%가 중국 광둥성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등지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내 홍콩제조업체들은 종래 미국-중국간 무역논쟁과 미·EU의 대중 쿼터

적용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중국의 WTO 가입후 국제교역 환경이 정비되면 무역분류가 크게 감소하고 특히, 중-미간 교역에서 정치적인 요인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앞으로도 반덤핑문제는 계속 존재하겠지만 전반적인 교역환경은 크게 안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내 생산코스트 인하

현재 중국에 진출한 홍콩 가공무역업체는 원자재의 약 80%를 해외수입(대부분 홍콩을 경유한 재수출 형태)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관세율 인하로 원자재 수입가격이 인하되면 홍콩기업들의 생산코스트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국이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각급 관공서의 부당비용 징수사례도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홍콩업체는 내다보고 있다. 18)

역외무역 대폭 증가

홍콩은 오랫동안 중국의 중요한 역외무역기지로 자리잡아왔고 최근 들어선 역외무역서비스의 증가율이 중계무역 증가율을 크게 앞서고 있다. 홍콩 경제무역상회와 홍콩무역발전국은 중국의 대외교역이 확대되면 홍콩의 역외무역서비스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대외교역 확대와 함께 홍콩의 보험, 은행, 융자 기능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내 서비스시장 진출기회 확대

홍콩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서비스업 분야는 통신, 은행업과 법률, 회계, 관리, 증권 등 전문 서비스업종이다. 홍콩은 통신인프라에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앞서있어 WTO 가입후 중국내 무선호출, 이동전화 부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은행업은 화남(華南)지역내 홍콩투자업체와 홍콩과 거래가 있는 중국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위안화대출업무에서 강세를 보일 것이

18) 홍콩무역발전국(HKIDC)이 지난 '98년 11월 중국진출 홍콩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홍콩기업의 53%가 중국의 부당비용 징수사례가 전년(前年)보다 악화됐고 38%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홍콩기업들은 중국의 WTO 가입후에는 부당비용 징수사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란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전문서비스업종은 개방후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중국진출도 늘겠지만 지리적,문화적,언어적 요인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홍콩기업들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중국의 WTO 가입이 홍콩에 미치는 영향

유리한 요인	불리한 요인
▶ 해외수출시장 안정 중-미/중-EU간 정치적 요인 경감으로 교역여건 개선 ▶ 중국내 생산코스트 인하 중국 수입관세 인하로 생산코스트 절감, (중국내 홍콩가공무역업체 조달 원료의 80%가 수입에 의존) 내국민대우 실시로 부담비용 징수 감소 ▶ 역외무역(Offshore trade) 대폭 증가 WTO가입후 중국 대외교역 급성장 전망으로 홍콩의 역외무역 기회 증가. (보험, 은행, 운자 등에 연쇄반응 기대) ▶ 중국내 서비스시장 진출기회 확대 통신, 은행업, 전문서비스업(법률, 회계, 관리, 증권 등) 분야 홍콩우세 전망	▷ 중계무역기능 약화 우려 중국의 직교역 확대추세로 장기적으로 홍콩의 전통적 중계무역기능 약화 ▷ 전통적 우세요인 약화 우려 WTO 가입후 중국의 전면 개방으로 지리적 인접성, 언어상통 등 홍콩의 전통적 우세요인 약화 우려 ▷ 산업구조 조정압력 가중 중국내 홍콩투자는 노동집약적 가공 무역업 위주인 관계로 향후 산업구조 조정(산업구조 고도화) 압력가중 ▷ 외국기업 홍콩이탈 우려 중국 개방과 홍콩 高코스트 구조가 맞물려 홍콩주재 다국적기업의 홍콩이탈 가능성 우려

(2) 불리한 요인

중계무역기능 약화 우려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개방의 폭을 넓혀왔고 특히, WTO 가입후 전면개방의 단계로 나서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홍콩의 중계무역기능은 어떠한 형태로든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그러나, 홍콩 무역업체는 고도의 소싱능력과 상품전문지식, 중국내 인맥 등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WTO 가입이후에도 홍콩의 중계무역기능이 단기간내 급속히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

19) 실제로, 최근 홍콩의 주요 재수출대상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33.9%에서 2000년 1 11월중에는 35.0%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홍콩의 중계무역상들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중국 민간 중소기업들의 수출입권한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지만 이들은 해외경험이 부족해 당장 외국업체와의 직교역에 나설수 없어 홍콩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홍콩의 중계무역기능이 오히려 강화될 전망이다.

전통적 우세요인 약화

홍콩은 중국(특히, 주강삼각주 등 광둥성 일대)과의 지리적 인접성, 언어상 통 등의 요인으로 인해 종래 소위 ‘관시’(關係) 측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후 전면개방 시대에는 ‘관시’보다는 법적·제도적 측면이 우선시됨에 따라 홍콩의 전통적인 우세요인도 점차 약화될 전망이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홍콩의 중계무역기능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구조조정압력 가중

홍콩의 대중국 투자는 노동집약적인 가공무역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최근 기술력이 급성장한 중국업체들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후 외국의 하이테크기업들이 중국내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저가에 원자재를 수입하게 되면 홍콩업체들의 위치는 크게 위협받게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중국내 홍콩기업들은 품질향상 내지는 대체제품 개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홍콩내 모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체적으로 홍콩의 산업구조 조정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외국기업 홍콩이탈 우려

장기적인 중계무역기능의 약화와 함께 홍콩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바로 홍콩주재 외국기업의 홍콩이탈 현상이다. 홍콩의 고비용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상하이, 싱가포르 등지로 거점을 이전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0)

20) 세계적인 부동산전문 서비스회사인 DIZ가 발표한 2000년 기준 세계 주요도시의 사무실 임차료 비교자료에서 홍콩 중심가의 사무실 임차료(S/F 기준)는 연간 US\$ 105.83으로 토오쿄오(Central 5 Wards)-런던(West End)-런던(City)-토오쿄오(Outer Ward)에 이어 세계 5위에 올라있다.(상하이는 浦西와 浦東지역이 각각 지역 US\$ 29.34, US\$ 25.64)

다만, 홍콩이 다소 안도감을 갖는 것은 거대 다국적기업들은 중국 직접진출 움직임이 뚜렷한 반면, 중국진출경험이 부족한 구미(歐美) 중견기업의 경우는 홍콩을 경유해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1)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의 WTO 가입이 홍콩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실(失)보다는 득(得)이 많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홍콩의 경제 및 산업구조가 전통적인 단순 중계기능에서 벗어나 신속히 고부가가치분야 중심으로 이행하는데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싱가포르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WTO 가입이 홍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전반적이라면 싱가포르에 미치는 영향은 중단기적 관점에서 간접적이고 제한적이다. 대중경제관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오히려 크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2] 참조

[표 12] 중국의 WTO 가입이 싱가포르에 미치는 영향

유리한 요인	불리한 요인
▶ 대중국 IT제품 수출 증가 싱가포르의 주종수출품인 컴퓨터 및 그 부품, 반도체 등 2005년까지 중국 수입 관세 폐지로 대중 수출증가 전망 ▶ 대중국 통신·금융·유통분야 투자확대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로 투자진출 확대 ▶ 중국기업의 싱가포르 증시상장 확대 중국기업의 해외증시 상장확대 추세 ▶ 역내교역 안정성 제고 중국요인으로 亞太지역 교역질서 안정	▷ 해외시장 경쟁격화 일부 low-end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격화가 우려되며 특히, 대만(단기), 중국(장기)과의 직접 경쟁관계 형성 가능 ▷ 동남아 생산라인 중국이전의 부작용 동남아소재 생산라인의 중국이전 필요성 증가 및 이로 인한 부작용 우려 ▷ 다국적기업 홍콩이전 가능성 일부 다국적기업 홍콩으로 재이전 우려

21) 홍콩정부 통계처가 2000년 12월 18일 발표한 ‘해외기업 홍콩주재 사무소 조사’(二〇〇〇年海外公司駐香港地區代表統計調查)에 따르면, 2000년 6월 1일 현재 외국기업의 홍콩주재 지역본부와 지역사무소는 3,001개로 1년전 보다 511개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콩이탈 기업보다는 홍콩 신규진출 기업 숫자가 더 많음을 뜻하는 것이다. 홍콩주재 외국기업들은 상당수가 중국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홍콩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나아가, 아태지역 전역을 관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콩주재 외국기업의 급속한 홍콩이탈 현상은 없을 것이란 게 홍콩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싱가포르의 홍콩과 비교해 대중국 무역.투자 연계성이 크지 않아 싱가포르 정부 및 업계의 반응과 대응동향은 홍콩처럼 절박하다기 보다는 다소 원론적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1) 유리한 요인

대중국 IT제품 수출 증가

중국은 정보통신기술협정(ITA) 사항 이행으로 2003년 1월까지 ITA 적용 품목의 2/3에 대해 0%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 1월까지의 모든 잔여 IT 제품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기로 되었다. 정보통신분야중 컴퓨터와 그 부품, 반도체 등이 싱가포르의 주력 수출상품으로써 중국의 관세율 폐지는 싱가포르의 대중국 수출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대중국 통신.금융.유통분야 투자 확대

투자에 있어서는 통신, 금융, 유통분야를 중심으로 싱가포르기업의 중국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싱가포르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후견기지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기업의 싱가포르 증시상장 확대

중국의 WTO 가입이후엔 외국기업의 중국진출 못지 않게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늘고 특히, 해외증시 상장도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국기업들은 이미 홍콩 및 미국 증시를 비롯해 세계 10여 개 증시에 상장해 있지만 앞으로는 해외자금조달 및 동남아 거점확보를 겨냥해 싱가포르 증시상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역내교역 안정성 제고

원론적 차원의 전망이긴 하지만 중국의 WTO 가입은 아태지역 역내교역 환경의 안정성을 제고시켜 싱가포르에게도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거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2) 불리한 요인

해외시장 경쟁격화

중국의 수입관세율 인하이후 중국내 제조업체들의 수입원자재 코스트가 하락하면 싱가포르의 동남아 각지에서 생산하는 low-end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단기적으로는 세부 주종품목 구조가 유사한 대만과의 경쟁이 발등의 불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쟁이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동남아 생산라인 중국이전의 부작용

해외시장 및 중국에서의 경쟁격화로 인해 동남아 인근지역에 소재한 싱가포르의 생산라인은 중국으로의 이전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생산라인 이전시에는 당장 이전비용부터 문제가 되겠지만 중국내 생산공정을 싱가포르에서 관리하기엔 지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여러 측면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다국적기업 홍콩이전 가능성

외국 다국적기업들의 중국업무가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홍콩을 이탈했던 싱가포르주재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다시 홍콩 등지로 회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를 들어, 중국의 WTO 가입후 화남(華南)지역 업무비중이 커진 다국적기업이라면 중국내 생산-내수판매-해외수출을 총괄할 수 있는 홍콩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라. 상하이에 미치는 영향

상하이는 WTO 가입으로 인한 개방의 당사자이자 외국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장이라는 측면에서 앞서 살펴본 홍콩과 싱가포르와는 다른 차원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표 13] 참조

(1) 유리한 요인

산업구조 고도화

상하이는 '90년에 4.3%-63.8%-31.9%였던 1차 산업-2차 산업-3차 산업의 비중이 '99년에 2.0%-48.4%-49.6%로 3차산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됐고 2000년에는 3차 산업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WTO 가입이후 유통, 금융, 무역 등 서비스부문의 개방이 본격화되면 노동집약산업의 중서부 내륙지역 이전이 가속화되고 3차 산업의 비중은 보다 빠른 속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다국적기업 진출 가속화

아태지역을 총괄하는 홍콩주재 다국적기업중 일부는 중국관련 업무만을 별도 분리, 상하이에 중국지역본부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상하이는 선전(深圳)과 함께 중국의 대표적인 시범 개방도시로써 다국적기업의 중국지역본부 설립이 붐을 이룰 전망이다. 다만, 홍콩주재 다국적기업중 중국업무를 별도 분리하지 않는 상당수 기업들은 여전히 홍콩을 아태지역 총괄본부로 활용할 전망이다.

중국최대 물류허브(Hub) 기능 강화

상하이는 江蘇.浙江省 등을 포함한 華東경제권의 핵심지역으로 이들 배후

[표 13] 중국의 WTO 가입이 상하이에 미치는 영향

유리한 요인	불리한 요인
▶ 산업구조 고도화 유통.금융.무역업 등 서비스산업 비중 지속 확대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 ▶ 다국적기업 진출 가속화 중국의 개방확대로 홍콩주재 다국적기업의 상하이 이전 가능성 증가 ▶ 중국최대 물류허브 기능 강화 江蘇.浙江省 등 인근 長江三角洲지역의 핵심 물류거점 기능 강화 ▶ 금융센터 지위 공고화 각종 금융개방 확대조치가 상하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국제금융센터 성장 기틀 마련	▷ 비교열세 품목 수입증가 노동집약형 경공업제품은 상하이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나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제품 등 비교열세 품목은 외국제품 수입 급속 증가예상 ▷ 국별 경쟁격화로 인한 부작용 우려 WTO 가입초기, 상하이내 국별 경쟁격화로 시장질서 문란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우려 ▷ '성장'과 '시스템'간 괴리심화 우려 상하이의 급성장 추세에도 단기간내 홍콩수준의 '시스템' 보유가능성은 크지 않음

지역과 함께 중국전체 소비시장규모의 36.3%(‘99년 기준)를 차지하는 중국 최대의 소비시장이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전국 각 省市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99년 기준으로 상하이는 중국 대외교역 총액의 10.7%를 담당하고 있고 자동차, 전자통신설비, 가전, 철강, 석유화학, 발전설비 등 기존의 6대 지주산업이 상하이는 물론, 중국 전체의 공업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22)

이 같은 소비력과 물류처리능력을 바탕으로 WTO 가입후 상하이의 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외국계 유통업체의 진출도 늘어난다면 상하이는 華東지역(특히, 長江三角洲)은 물론, 중국 최대의 물류·유통거점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센터지위 공고화

중국정부는 상하이와 선전(深圳) 등 2개 도시를 금융개방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금융에 관한한 상하이가 선전을 훨씬 앞서있다. 2000년말 현재, 상하이에는 71개의 외국 금융기관(그 중, 은행은 지점, 사무소 포함 54개)이 진출해있고 45개 외국은행 지점중 23개 은행은 외국주재기업과 주재원을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이미 위안화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표 14] 참조

상하이는 2001년부터는 기존의 6대 지주산업을 정보, 금융, 무역·상업, 부동산(서비스), 자동차, 기계설비(제조)로 개편하는 등 금융분야 집중육성에 나서고 있다. WTO 가입이후엔 금융분야 개방 확대로 외국계 은행이 보다 집중될 전망이므로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가 훨씬 공고해질 것이다.

(2) 불리한 요인

비교열세 품목 수입증가

상하이의 전통적인 주력수출상품인 기계, 방직품 등 노동집약형 경공업재

22) 상하이항은 홍콩을 제외한 중국내 최대 컨테이너화물 처리항이다. ‘99년 상하이항의 처리물량은 420.6만 TEU로써, 선전(深圳; 297.8만 TEU), 칭따오(青島; 154.3만 TEU), 텐진(天津; 130.3만 TEU)을 크게 앞서 있다.

품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제품 등 비교열세 품목은 외국제품의 수입이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상하이는 현재도 수입이 수출규모를 초과하고 있지만 WTO 가입 초기에 무역적자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23)

[표 14] 상하이주재 외국은행 지점 현황(45개 사)

국 명(갯수)	은 행 명 칭
일본(9)	<u>The Sanwa Bank, The Industrial Bank of Japan, The Sakura Bank, The Dai-Ichi Kangyo Bank, Bank of Tokyo-Mitsubishi, The Sumitomo Bank,</u> The Asahi Bank, The Fuji Bank, Tokai Bank
프랑스(6)	<u>Credit Lyonnais, Credit Agricole Indosuez, The Int'l Bank of Paris & Shanghai,</u> Societe Generale, Natexis Banque-BFCE, Babque Paribas
독일(5)	<u>Dresdner Bank, Commerzbank,</u> Deutsche Bank, Westdeutsche Landesbank Girozentrale, Bayerische Landesbank
미국(4)	<u>Citibank, Bank of America,</u> The Chase Manhattan Bank N.A., Bank of New York
싱가포르(4)	<u>Overseas-Chinese Banking Corp.,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u> United Overseas Bank, Overseas Union Bank
홍콩(3)	<u>The Bank of East Asia,</u> Po Sang Bank, Hang Seng Bank
네덜란드(3)	<u>ABN-AMRO Bank,</u> Rado Bank, ING Bank N.V.
한국(2)	<u>The Korea Development Bank(산업은행), Hanvit Bank(한빛은행)</u>
영국(2)	<u>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 Standard Chartered Bank</u>
이태리(2)	Banca di Roma, Banca Commerciale Italiana
태국(2)	Bangkok Bank, TM International Bank
벨기에(1)	KBC Bank
호주(1)	<u>ANZ Bank</u>
스위스(1)	<u>Credit Suisse First Boston</u>
합 계	총 45개 지점

주 : 밑줄친 굵은글씨는 위엔화업무 취급은행임.(23개)

국별 경쟁격화로 인한 부작용 우려

앞으로 단기간내 외국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면 국별 경쟁격화로 인한 외국 기업들의 저가 덤핑공세 가능성도 예상된다. 물론, 상하이시가 반덤핑판정

23) 상하이항을 '경유'하는 전체 교역에서는 수출이 수입을 앞서지만 상하이시 자체 교역실적 기준으로는 '99년 수출 US\$ 183억, 수입 US\$ 238억, 2000년(1-11월) 수출 US\$ 232억, 수입 US\$ 265억으로 적자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등 가격단속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기업들의 가격인하경쟁까지 가세할 경우, WTO 가입초기에 시장질서가 문란해질 수도 있다.

‘성장’과 ‘시스템’간 괴리심화 우려

상하이시는 제 10차 5개년 계획기간(2001~2005)중 ‘도시 종합경쟁력 제고’를 경제발전 목표로 내걸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이 상호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국제경제의 중심도시로 탈바꿈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상하이는 외형적으로는 급성장세를 지속하겠지만 사회주의경제의 특성상, 단기간 내 홍콩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소프트웨어(시스템)를 보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되면, ‘성장’과 ‘시스템’간의 괴리가 심화돼 향후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홍콩 - 싱가포르 - 상하이 활용방안

3. 홍콩 - 싱가포르 - 상하이 활용방안

제 3장에서는 제 1장과 제 2장의 내용을 기초로 홍콩-싱가포르-상하이를 활용한 중국시장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으로 우선,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에 미치게 될 영향을 전망하고 한국과 홍콩-싱가포르-상하이의 무역·투자관계를 살펴본다. 또,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싱가포르와 상하이의 이른바 ‘홍콩 추월論’의 타당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한다.

가. 전략적 고려

(1)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중국은 한국의 제 3대 수출대상국이다. 대중국 수출은 ‘99년에 138억 6,500만 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2000년 1 11월 중에는 전년동기 대비 38.3%나 증가한 169억 3,200만 달러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무역흑자 대상국 순위에 있어서도 중국은 2000년 1 11월 현재, 홍콩과 미국에 이어 제 3위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화학제품, 유류제품, 전자부품, 식물, 철강 등 원부자재와 시설재로써 이들 품목의 비중이 전체 수출실적의 약 70%선에 달한다. 적지않은 한국의 원부자재 취급상들이 “중국이 없다면 수출할 시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지대하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2000년 11월말 투자이행기준 누계로 4,840건, 46억 600만 달러에 달해 금액기준시 중국은 미국에 이은 한국의 제 2위 해외직접 투자 대상국이다.

그러나, 대중국 건당 평균투자금액은 약 95만 달러로 대미 건당 평균 투자금액(367만 달러)은 물론, 대홍콩 건당 평균 투자금액(274만 달러)에도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는 대중국 투자가 중국의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중소기업형 가공무역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대중국 투자는 지리적으로도 山東(전체 실제투자 금액의 27.0%)-上海·江蘇·浙江(24.9%)-北京·天津·河北(22.1%)-遼寧·吉林·黑龍江(16.9%)에 밀집돼 있고 홍콩·대만의 가공무역기지인 廣東·福建에 대한 비중은 4.7%에 불과하다.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의 대중 무역·투자에 아래와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5] 참조

[표 15]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유리한 요인	불리한 요인
▶ 시장접근기회 확대로 수출 증가 단기적으로 대중 수입보다 수출 증가. 중장기적으로 교역 투명성 제고 효과 기대 ▶ 주력 수출품 시장점유율 확대 전자부품 등 한국산 주력 품목의 대중 수출 지속 증가 ▶ 대중 투자구조 고도화 계기 중국의 전방위 개방은 제조업 일변도의 대중투자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 ▶ 수평적 교역 확대 중래의 양국간 수직적 교역구조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수평적 교역으로 변화될 전망	▷ 각국간 경쟁격화 우려 중국내 각국 경쟁격화로 가격인하 요인 발생, 수출물량대비 채산성 악화 우려 ▷ 중국내 소비시장 진출기반 미약 원부자재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와 현지 유통업진출 노력 부족으로 소비 시장 진출기반 미약 ▷ 대중 직접투자의 부메랑효과 우려 중국내 한국 투자업체가 제조한 저가 공산품에 의한 부메랑효과 우려. 가공무역투자기업의 중국산 원부재 사용비중 확대시 대중수출 감소 우려 ▷ 중국의 보복성 수입제한조치 우려 WTO 가입초기에 자국산업 보호위해 반덤핑조례 등 수시 발동 가능성

유리한 요인

시장접근기회 확대로 수출 증가

단기적으로 중국산 저가 공산품과 농산물의 국내 수입급증도 우려되나 이 보다는 중국의 수입관세율 인하로 인한 한국산 원부자재·부품 수출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법적·제도적 정비에 따라 양국간 교역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

주력 수출품 시장점유율 확대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산업용 전자부품류를 비롯, 석유화학제품(에틸렌, HDPE, LDPE), 중고급 직물류,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이 늘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천연섬유직물(면, 마, 견직물)은 대중국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최근년도 수출이 줄고있는 백색가전은 앞으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중국 현지생산체제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대중 투자구조 고도화 계기

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계약서상에 외환수지 균형, 수출 및 내수판매 비율을 명시해 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돼있으나 WTO 가입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환수지균형 및 수출의무비율 조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소규모 제조업투자 위주인 대중 투자구조가 서비스업(유통, 금융, 보험 등)과 기술집약 중화학공업으로 까지 폭넓게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평적 교역 확대

현재 한-중간 교역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공무역업 투자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현지투자한 가공무역업체가 한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이를 중국내에서 가공, 제 3국 또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WTO 가입이후 중국기업들의 기술력이 급속히 향상되면 완제품과 완제품간 교역 비중이 늘어나 양국간 수평적 교역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불리한 요인

각국간 경쟁격화 우려

중국의 WTO 가입초기에 가장 우려되는 상황중의 하나이다. 관세인하로 각국 제품이 중국시장으로 몰려들면 가격인하 요인이 생길 것이고 이로 인

해 한국의 대중 수출은 물량 증가속에서도 채산성이 보다 악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전기전자 제품(완제품)의 경우는 최근 1 2년간 나타났던 업체간 악성 덤핑경쟁이 재연돼 수출채산성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내 소비시장 진출기반 미약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은 원부자재와 시설재 중심이며 소비재 수요를 확산시킬 수 있는 현지 유통업 기반이 미약하다.(일본의 경우, 홍콩과 중국에 개설한 자국 유통업체에서 자국제품을 홍보해 현지 소비층을 확보했음) 이에 따라, 대중 투자구조는 비교적 단기간내 고도화되는 반면, 수출품목 구조는 당분간 취약성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대중 직접투자의 부메랑효과 우려

중국내 한국 투자업체가 생산한 저가 공산품은 중국 또는 해외 바이어를 효과적으로 발굴하지 못할 경우, 한국으로 수입되는 부메랑효과도 우려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구조를 고려해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직후부터 부메랑효과가 가시화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또, 중국은 최근 2 3년 전부터 외국 가공무역업체에 대해 중국산 원자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앞으로 중국내 한국 가공무역업체가 한국산 원자재 수입보다 중국산 원자재 현지구매를 선호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급속히 감소해 전체 무역수지관리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보복성 수입제한조치 우려

중국은 WTO 가입초기에 자국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이미 제정한 반덤핑 조례, 긴급수입제한조치 조례 등을 수시로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지난해(2000년)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관세 부과조치를 내렸다가 중국측으로부터 한국산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 잠정 수입금지라는 엄청난 보복을 받은 적이 있어 앞으로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 한국과 홍콩-싱가포르-상하이 관계

무 역

홍 콩

홍콩은 한국 전체 무역수지가 84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 '97년 단일시장 사상 최초로 108억 2천 2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이후 연간 80억 달러이상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최대의 무역흑자 시장이다. 아시아 외환위기의 간접적 영향으로 홍콩경기가 급강하했던 '98년엔 대홍콩 교역이 전년대비 22.4%나 급감했으나 '99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표 16] 참조

[표 16] 최근년도 한국의 對홍콩 교역동향

(단위 : US\$ 백만,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1 11
교역총액	12,274(+ 3.8)	12,628(+ 2.9)	9,801(-22.4)	9,931(+ 1.3)	11,014(+10.9)
수 출	11,131(+ 4.2)	11,725(+ 5.3)	9,261(-21.0)	9,048(- 2.3)	9,833(+20.9)
수 입	1,143(+36.3)	903(-20.9)	540(-40.2)	883(+63.4)	1,181(+53.5)
수 지	9,988(+ 4.7)	10,822(+ 8.4)	8,721(-19.4)	8,165(- 6.4)	8,652(+ 6.0)
흑자순위	1위	1위	1위	1위	1위

주 :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자료원 : KOTIS

2000년 1 11월 현재 대홍콩 상위 10대 수출품은 IC, 석유·역청유, 송신기기, 음극선관, 합성필라멘트사직물, 스틸렌중합체, 금, 지류, 소가죽, 방직용 섬유직물 등이다. 24) 이 가운데 IC는 대홍콩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년 9.1%에서 '99년 13.7%, 2000년(1 11월) 14.7%로 급상승 추세에 있다. 이 밖에도, 석유, 역청유, 송신기기, 스틸렌중합체 등의 비중은 상승한 반면, 음극선, 합성필라멘트사직물 등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17] 참조

24) 품목은 HS CODE 4단위 기준임.

IC(HS CODE 8542), 석유·역청유(2710), 송신기기(8525), 음극선관(8540), 합성필라멘트 사직물(5407), 스틸렌중합체(3903), 금(7108), 지류(4810), 소가죽(4104), 방직용 섬유 직물(5903)

[표 17] 한국의 對홍콩 상위 20대 수출상품 구조(HS CODE 4단위)

순위	1998	1999	2000. 1 11
1	IC 8542 9.1% < 5.2%	IC 8542 13.7% < 6.9%	IC 8542 14.7% < 7.9%
2	석유.역청유 2710 7.3% <15.6%	석유.역청유 2710 6.9% <11.4%	석유.역청유 2710 9.2% <11.0%
3	합성필라멘트사직물 5407 5.9% <14.9%	송신기기 등 8525 5.6% <11.9%	송신기기 등 8525 6.2% <10.9%
4	음극선관 8540 5.8% <21.9%	음극선관 8540 5.3% <11.5%	음극선관 8540 4.3% <12.7%
5	금 7108 4.2% < 5.9%	합성필라멘트사직물 5407 4.2% <11.2%	합성필라멘트사직물 5407 3.3% <10.3%
6	송신기기 등 8525 4.0% <20.8%	금 7108 4.1% <12.7%	스틸렌중합체 3903 3.3% <24.8%
7	스텐레스(평판압연) 7219 2.9% <32.9%	도포한 지, 판지 4810 3.3% <31.2%	금 7108 3.0% <20.6%
8	스틸렌중합체 3903 2.7% <29.8%	스틸렌중합체 3903 2.9% <27.4%	도포한 지, 판지 4810 2.6% <25.5%
9	방직용 섬유직물 5903 2.6% <25.2%	방직용 섬유직물 5903 2.9% <22.1%	소가죽 4104 2.5% <28.9%
10	소가죽 4104 2.4% <26.0%	소가죽 4104 2.5% <25.9%	방직용 섬유직물 5903 2.5% <19.6%
11	도포한 지, 판지 4810 2.4% <26.2%	기타 메리야스편물 6002 2.2% <12.2%	반도체 디바이스 8541 2.2% <21.5%
12	기타 메리야스편물 6002 2.2% <14.4%	스텐레스(평판압연) 7219 2.2% <24.7%	컴퓨터부품 8473 1.9% < 2.0%
13	합성장섬유사 5402 1.8% <15.4%	반도체 디바이스 8541 2.0% <20.8%	기타 메리야스편물 6002 1.8% <10.2%
14	동선 7408 1.7% <46.8%	합성장섬유사 5402 1.8% <17.2%	스텐레스(평판압연) 7219 1.7% <17.5%
15	반도체 디바이스 8541 1.6% <20.4%	컴퓨터 8471 1.2% < 1.5%	합성장섬유사 5402 1.6% <15.8%
16	선박 8901 1.5% < 2.0%	동선 7408 1.2% <30.7%	컴퓨터 8471 1.4% < 1.6%
17	철(냉간평판압연) 7209 1.4% <11.9%	철(냉간평판압연) 7209 1.1% <12.0%	동선 7408 1.3% <29.2%
18	철(크래드.도금) 7210 1.2% < 8.5%	철(크래드.도금) 7210 1.0% < 8.0%	환식탄화수소 2902 1.2% < 6.9%
19	컴퓨터 8471 1.2% < 2.4%	환식탄화수소 2902 0.9% < 6.4%	철(냉간평판압연) 7209 1.0% < 9.2%
20	정제한 동, 동합금 7403 0.9% <15.7%	전자부품 8529 0.8% < 4.8%	철(크래드.도금) 7210 1.0% < 7.9%
총 계	62.5%	65.8	66.7

주 : 품목명 아래숫자는 대홍콩 총수출내 비중/< >는 품목별 한국 전체 수출내 비중
 자료원 : KOTIS

한편, 대홍콩 수출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홍콩의 한국상품 재수출 동향이다. 홍콩통계처 자료를 보면, 홍콩을 경유한 한국상품의 중국시장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다. 25)

‘99년 기준으로 홍콩중계상이 취급한 한국상품 재수출실적은 50억 410만 달러로써 이중 79.5%에 달하는 39억 7,670만 달러 상당이 중국으로 재수출됐다. 기타 한국상품의 주요 재수출 대상국으로는 대만(1억 8,910만 달러; 3.8%), 미국(1억 4,580만 달러; 2.9%), 싱가포르(1억 2,550만 달러; 2.5%), 일본(8,470만 달러; 1.7%) 등으로 이들 5개국으로의 재수출비중이 전체 한국상품 재수출 총액의 90.4%에 달한다.

주요 품목별로 재수출 목적지를 살펴보면, 역시 중국이 압도적이다. 지류(도포한 지,판지; HS 4810)와 스틸렌중합체(3903)는 각각 99.5%와 99.3%가 중국으로 재수출됐고 음극선관(8540), 소가죽(4104)도 98% 이상이 중국으로 향했다. 이 밖에, 기타 메리야스편물(6002)의 93.4%, 전자부품(8529)의 84.6%, IC(8542)의 28.4%, 컴퓨터부품(8473)의 28.2%가 중국으로 재수출됐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상품의 홍콩경유 대중 재수출실적이 대중 직수출 금액과 비교해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후 홍콩의 중계무역기능이 중단기적으로는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보면 홍콩시장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표 18] 참조

[표 18] 주요 품목별 ‘대중 직수출’과 ‘홍콩경유 대중 재수출’ 실적비교

(단위 : US\$ 백만)

품 목 명	대중 직수출	홍콩경유재수출	품 목 명	대중 직수출	홍콩경유재수출
IC	153	143	전자부품	192	146
음극선관	831	409	송신기기	47	13
합성필라직물	323	282	컴퓨터부품	115	46
스티렌중합체	251	213	도포 지, 판지	320	157
소가죽	380	210	기타 편물	276	100

주 : 금액은 ‘99년도 기준

자료원 : KOTIS(대중 직수출 통계), 홍콩통계처(홍콩경유 대중 재수출 통계)

25) 홍콩의 재수출통계는 한국내 무역통계에서는 집계되지 않고 홍콩통계처 자료로만 확인된다.

싱가포르

2000년 1 11월 기준으로 싱가포르는 미국-일본-중국-홍콩-대만에 이은 한국의 제 6위 수출대상국이며 흑자순위로도 홍콩-미국-중국-대만-영국에 이은 제 6위에 올라있다. 한국의 대상가포르 수출은 '96년부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다가 대홍콩 수출이 회복되기 시작한 '99년부터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보다 수입증가율이 커서 무역흑자폭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19] 참조

[표 19] 최근년도 한국의 對싱가포르 교역동향

(단위 : US\$ 백만,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1 11
교역총액	8,966(+ 1.2)	8,214(- 8.4)	5,778(- 29.7)	7,234(+25.2)	8,715(+20.5)
수 출	6,439(- 3.8)	5,797(- 10.0)	4,065(- 29.9)	4,922(+21.1)	5,275(+22.9)
수 입	2,527(+16.6)	2,417(- 4.4)	1,713(- 29.1)	2,312(+35.0)	3,440(+69.3)
수 지	3,912(- 13.5)	3,380(- 13.6)	2,352(- 30.4)	2,610(+11.0)	1,835(- 29.7)
흑자순위	2위	3위	7위	6위	6위

주 :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자료원 : KOTIS

2000년 1 11월 현재 대상가포르 상위 10대 수출품은 IC, 컴퓨터부품, 선박, 금, 석유.역청유, 송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디바이스, 음극선관, 승용차 등이다. 26) 홍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대상가포르 총수출에서 IC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급속히 커져 2000년 1 11월 현재 43.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27) 컴퓨터부품의 비중도 증가세에 있으나 선박, 석유.역청유 등은 감소 추세다. [표 20] 참조

대상가포르 수출상품 구조의 특징적인 현상은 IC의 비중은 매우 높으나 기타 품목, 특히 11 20위 수출품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26) 품목은 HS CODE 4단위 기준임.

IC(HS CODE 8542), 컴퓨터부품(8473), 선박(8901), 금(7108), 석유.역청유(2710), 송신기기(8525), 컴퓨터(8471), 반도체 디바이스(8541), 음극선관(8540), 승용차(8703)

27) 이 기간중 대상가포르 IC 수출실적은 22억 9,000만 달러로 대홍콩 실적(14억 5,000만 달러)을 크게 앞서며 싱가포르는 미국-일본에 이은 한국의 제 3위 IC 수출대상국이다.

[표 20] 한국의 對싱가포르 상위 20대 수출상품 구조(HS CODE 4단위)

순위	1998		1999		2000. 1 11	
1	IC	8542 36.9% < 9.3%	IC	8542 42.0% <11.5%	IC	8542 43.4% <12.4%
2	금	7108 11.1% < 6.8%	선박	8901 9.0% < 6.7%	컴퓨터부품	8473 6.1% < 3.4%
3	석유.역청유	2710 9.2% < 8.7%	석유.역청유	2710 7.9% < 7.2%	선박	8901 5.8% < 4.9%
4	선박	8901 8.4% < 4.9%	컴퓨터부품	8473 3.6% < 5.6%	금	7108 5.4% <20.0%
5	컴퓨터	8471 4.0% < 3.6%	금	7108 2.6% < 4.5%	석유.역청유	2710 4.7% < 3.0%
6	반도체 디바이스	8541 1.7% < 8.9%	컴퓨터	8471 2.2% < 1.5%	송신기기	8525 3.0% < 2.8%
7	액정 디바이스	9013 1.5% < 4.8%	음극선관	8540 1.9% < 2.9%	컴퓨터	8471 2.5% < 1.5%
8	정제한 동, 동합금	7403 1.4% <11.1%	반도체 디바이스	8541 1.7% < 9.9%	반도체 디바이스	8541 2.1% <11.0%
9	절연전선	8544 1.2% < 8.3%	액정 디바이스	9013 1.7% < 3.4%	음극선관	8540 1.4% < 2.3%
10	음극선관	8540 1.1% < 1.3%	기타 항공기	8802 1.3% <28.6%	승용차	8703 1.3% < 0.7%
11	인쇄회로	8534 1.0% < 8.7%	송신기기	8525 1.2% < 1.4%	인쇄회로	8534 0.8% < 6.0%
12	합성필라멘트사직물	5407 0.9% < 1.0%	절연전선	8544 1.1% < 9.0%	합성필라멘트사직물	5407 0.8% < 1.3%
13	팔목시계.회중시계	9102 0.6% <10.2%	합성필라멘트사직물	5407 1.0% < 1.5%	기타 기계류	8479 0.7% < 3.6%
14	철.비합금 형강	7216 0.5% < 6.0%	인쇄회로	8534 0.8% < 6.7%	축전기	8532 0.7% < 6.5%
15	철.비합금평판압연	7210 0.5% < 1.5%	철.비합금평판압연	7210 0.6% < 2.4%	절연전선	8544 0.6% < 5.3%
16	축전기	8532 0.4% < 5.9%	중고 의류.섬유	6309 0.5% <39.3%	오디어.비디오 부품	8522 0.6% < 3.3%
17	알루미늄 판.쉬트	7606 0.4% < 8.0%	승용차	8703 0.5% < 0.2%	중고 의류.섬유	6309 0.5% <37.3%
18	음성재생기	8519 0.4% < 6.2%	음성재생기	8519 0.5% < 9.7%	화물자동차	8704 0.5% < 3.9%
19	아연 괴	7901 0.4% < 8.4%	고무의 관, 파이프	4009 0.5% <77.3%	텔레비전수상기	8528 0.5% < 1.7%
20	열처리기기류	8419 0.4% < 6.4%	신문용지	4801 0.5% < 7.8%	철.비합금 형강	7216 0.5% < 7.3%
총 계		82.8%		81.1%		81.9%

주 : 품목명 아래숫자는 대상가포르 총수출내 비중/< >는 품목별 한국 전체 수출내 비중
 자료원 : KOTIS

상하이

상하이세관 전산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상하이항 경유 수출은 '99년 24억 2,700만 달러에 이어 2000년 1 6월중에는 전년동기 대비 70.2% 증가한 17억 5,800만 달러다. 같은 기간동안 수입은 각각 16억 7,300만 달러와 12억 2,400만 달러로 교역규모가 급팽창하면서 한국의 흑자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28) 200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할 때, 상하이항은 한국의 대중 교역액의 18.6%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상하이의 경우도 앞서 살펴본 홍콩,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외환위기 시기인 '98년에는 수출과 수입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참조

[표 21] 최근년도 한국의 상하이항 경유 교역동향

(단위 : US\$ 백만, %)

구 분	1998	1999	2000. 1 6
교역총액	3,067 (- 17.5)	4,100 (+33.7)	2,982 (+64.3)
수 출	2,003 (- 6.4)	2,427 (+21.2)	1,758 (+70.2)
수 입	1,064 (- 32.5)	1,673 (+60.1)	1,224 (+56.5)
수 지	939 (+67.1)	754 (- 19.7)	534 (+112.8)

주 : 對상하이 교역동향은 우리나라 상품의 상하이항 경유 수출입 기준임.

: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을

자료원 : 2000 상해통계연감, 상하이세관 전산통계

2000년 1 6월 현재, 한국의 대상하이(항) 상위 10대 수출품은 석유.역청유, 합성필라멘트사직물, IC, 폴리카르복시산, 음극선관, 에틸렌 중합체, 원자로, 아세탈수지, 지류, 합성스테이플섬유 등으로, 화학제품과 의류 원부자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9) [표 22] 참조

28) 한국 통계(KOTIS)에 따르면, '99년 한국의 대상하이 수출은 12억 9,300만 달러인데 이는 한국의 대상하이(소재 기업) 수출실적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물동량을 감안한 총체적인 교역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근 省市소재 기업들의 상하이항 경유화물도 포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여기서는 상하이세관 통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29) 품목은 HS CODE 4단위 기준임.

석유.역청유(2710), 합성필라멘트사직물(5407), IC(HS CODE 8542), 폴리카르복시산(2917), 음극선관(8540), 에틸렌중합체(3901), 원자로(8401), 아세탈수지(3907), 지류(도포한 지, 판지; 4810), 합성스테이플섬유(5503)

[표 22] 한국의 상하이항 경유 상위 20대 수출상품 구조(HS CODE 4단위)

순위	1998	1999	2000. 1 6
1	합성필라멘트사직물 5407 8.2% < 4.5%	합성필라멘트사직물 5407 8.2% < 5.9%	석유.역청유 2710 7.8% < 3.4%
2	석유.역청유 2710 5.8% < 2.7%	석유.역청유 2710 6.7% < 3.0%	합성필라멘트직물 5407 6.9% < 6.8%
3	에틸렌 중합체 3901 3.9% < 8.1%	음극선관 8540 4.2% < 3.3%	IC 8542 6.0% < 1.1%
4	철(열간평판압연) 7208 3.3% < 4.3%	아세탈수지 등 3907 4.2% < 11.7%	폴리카르복시산 2917 4.8% < 17.9%
5	소가죽 4104 3.1% < 7.1%	에틸렌 중합체 3901 3.9% < 8.3%	음극선관 8540 4.1% < 4.1%
6	합성스테이플섬유 5503 2.9% < 8.5%	정제한 동, 동합금 7403 3.5% < 36.0%	에틸렌 중합체 3901 4.0% < 11.3%
7	도포한 지, 판지 4810 2.9% < 6.8%	도포한 지, 판지 4810 3.4% < 8.6%	원자로 8401 3.8% -
8	합성필라멘트사 5402 2.8% < 5.2%	IC 8542 3.3% < 0.5%	아세탈수지 등 3907 2.6% < 8.4%
9	기타 메리야스편물 6002 2.4% < 3.5%	폴리카르복시산 2917 3.2% < 11.9%	도포한 지, 판지 4810 2.4% < 6.9%
10	정제한 동, 동합금 7403 2.4% < 9.5%	합성스테이플섬유 5503 2.2% < 8.2%	합성스테이플섬유 5503 2.3% < 10.6%
11	음극선관 8540 2.4% < 1.9%	소가죽 4104 2.2% < 6.1%	합성필라멘트사 5402 2.1% < 6.3%
12	IC 8542 2.4% < 0.3%	스텔레스강 평판압연 7219 2.0% < 6.1%	철(크래드.도금) 7210 2.0% < 5.0%
13	폴리카르복시산 2917 2.0% < 7.6%	스틸렌중합체 3903 1.8% < 4.4%	스틸렌중합체 3903 1.8% < 4.6%
14	아세탈수지 등 3907 1.7% < 4.1%	방직용 섬유직물 5903 1.6% < 3.3%	스텔레스강 평판압연 7219 1.7% < 5.7%
15	프로필렌 중합체 3902 1.6% < 4.2%	철(크래드.도금) 7210 1.6% < 3.2%	소가죽 4104 1.7% < 6.5%
16	방직용 섬유직물 5903 1.6% < 3.3%	기타 메리야스편물 6002 1.6% < 2.3%	오디오.비디오 부품 8522 1.6% < 6.0%
17	철(냉간평판압연) 7209 1.5% < 2.8%	합성필라멘트사 5402 1.5% < 3.9%	방직용 섬유직물 5903 1.6% < 3.9%
18	철(크래드.도금) 7210 1.2% < 1.9%	프로필렌 중합체 3902 1.5% < 5.0%	철(열간평판압연) 7208 1.5% < 5.1%
19	의류 부속.부분품 6217 1.2% < 65.2%	철(열간평판압연) 7208 1.3% < 3.1%	철(냉간평판압연) 7209 1.3% < 3.7%
20	신발류 부분품 6404 1.2% < 7.2%	파일편물 6001 1.2% < 5.8%	프로필렌 중합체 3902 1.3% < 5.5%
총계	55.2%	59.1%	61.1%

주 : 품목명 아래숫자는 대상하이 총수출내 비중/< >는 품목별 한국 전체 수출내 비중
정보원 : 상하이세관 전산통계 (한국 전체 수출내 비중은 KOTIS 참조)

한국의 대상하이(항) 수출품목 구조는 싱가포르와 같은 특정품목 집중현상 보다는 각 품목별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체 대상하이(항) 수출에서 석유·역청유, IC, 음극선관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 전체간 교역은 여전히 산업간 상호보완적 구조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한-상하이 교역에서는 원자재와 각종 산업용 부품을 중심으로 산업내 교류형태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해 상하이의 산업고도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투 자

홍 콩

한국의 대홍콩 투자는 2000년 12월말 현재 신고기준으로 총 484건, 19억 128만 3천달러로 건당 평균 투자액은 약 392만 8천달러다. 주요 투자업종은 도소매업으로 246건, 12억 8,435만 3천달러에 달한다.

대홍콩 투자실적은 대중국 전체 투자규모(신고기준 : 6,303건, 77억 5,825만 1천달러)의 각각 7.7%와 24.5%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건당 평균 투자 규모에서 홍콩지역(392.8만 달러)이 중국지역(123만 달러)보다 3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진출 기업중 상당수는 홍콩은 물론, 중국(특히, 광둥성)·동남아지역 업무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싱가포르

한국의 대상가포르 투자는 2000년 12월말 현재 신고기준으로 총 135건, 7억 8,118만 8천달러이며 건당 평균 투자액은 약 578만 7천달러로 대홍콩 평균 투자액(392.8만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 투자의 경우, 건설업과 제조업의 건당 평균 투자금액이 홍콩보다 많기 때문이다.

종합상사(현지법인 및 지사, 사무소),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해 72개 사가 진출해 있고 상당수 기업이 인근 동남아지역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상하이

한국의 대상하이 투자는 2000년 12월말 현재 신고기준으로 총 199건, 6억 4,126만 4천달러로 건당 평균 투자액은 약 322만 2천달러에 달한다.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146건, 2억 5,844만 3천달러), 도소매업(27건, 3,435만 1천 달러), 부동산 및 서비스업(12건, 1억 8,534만 8천달러) 등이다.

상하이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한국기업들은 이 밖에도 상하이 浦東을 중심으로 건설프로젝트에, 江蘇省, 浙江省 등지에는 대형 제조업 프로젝트에 다수 진출하고 있다. 건설분야 주요 프로젝트로는 포스코개발(주상복합건물; 1.6억 달러), 한라건설(주상복합건물; 1억 달러), 극동건설(외국인전용 아파트; 1.2억 달러) 등이 있고 제조업분야에는 삼성전자(江蘇 싱가포르 공단; 4억 달러), 포철특수강(江蘇 張家港 2.4억 달러), 한국타이어(浙江 嘉興; 1.7억 달러) 등의 프로젝트가 있다.

☞ 한국의 지역별/업종별 해외투자진출 현황 [표 23] 참조

[표 23] 한국의 지역별/업종별 해외투자진출 현황

(단위 : 건, US\$ 천)

업 종 별	홍 콩		싱가포르		상 하 이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농림어업	3	6,102	4	1,245	1	447
광업	1	3,120	0	0	0	0
제조업	158	417,385	23	191,267	146	258,443
건설업	7	1,981	9	20,222	3	51,880
도소매업	246	1,284,353	68	378,580	27	34,351
운수창고업	23	35,075	13	20,305	5	15,310
통신업	1	39	1	87,699	1	4,750
금융보험업	1	1,200	0	0	0	0
숙박음식업	4	1,696	0	0	4	90,735
부동산서비스업	40	150,332	17	81,870	12	185,348
기타	0	0	0	0	0	0
합 계	484	1,901,283	135	781,188	199	641,264

주 : 2000년 12월말 현재 신고기준 누계

자료원 : 수출입은행

(3) ‘홍콩 추월論’의 타당성

홍콩은 과거 오랜기간 지리적 위치로나 실물(實物)의 흐름에 있어 자타가 공인하는 ‘아시아 비즈니스센터’였고 중국과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창구역할을 하며 부(富)를 축적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급성장과 화동경제권(華東經濟圈)의 핵심인 상하이의 급부상은 ‘아시아 비즈니스센터’가 더 이상 홍콩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전환을 가져왔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수위(首位)를 다투는 홍콩의 고비용 구조는 홍콩만이 유일한 선택은 아니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나아가, 싱가포르와 상하이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내 홍콩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소위 ‘홍콩 추월論’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중국의 WTO 가입이 홍콩과 싱가포르, 상하이에 미치게 될 영향을 정리하며 ‘홍콩 추월論’의 타당성을 점검하도록 한다.

홍콩은 제조업체의 90%가 광동성 주강삼각주 등지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WTO 가입후 예상되는 중국기업들의 혜택은 홍콩기업들도 똑같이 누리게 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대외교역량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단기적으로 홍콩의 중계무역과 역외무역이 증가하고 중국내 서비스분야 진출기회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기는 방식의 전통적인 중계무역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래 홍콩의 우세요인이 단순히 중계무역에 의존했다기 보다는 선진화된 서비스 시스템 전반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상하이 등 중국내 주요 거점도시의 서비스기능(시스템과 인프라)은 아직 홍콩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예상 가능한 시기내에 홍콩의 기능이 급속히 약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0)

30) ‘예상 가능한 시기’의 기간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하이가 홍콩을 추월하려면 최소한 2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경제위원회 황지판(黃奇帆) 주임의 경우,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20 30년은 홍콩이 산업구조를 보다 고도화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상하이의 금융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제 2증시 창설’ 및 ‘위안화 금리 시장화’와 관련, 중국정부가 당초 알려진 일정을 미뤄가면서 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금융산업분야의 국제화·선진화는 예상보다 그 속도가 완만해질 수도 있다.

또한, 상하이가 비록 중국내(홍콩제외) 최대의 컨테이너 처리항이긴 하지만 상하이는 홍콩과는 달리 천혜의 심수항(深水港)을 보유하지 못한 관계로 앞으로 상당기간 급증하는 물동량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31) 여전히 골이 깊은 지방보호주의 또한, 상하이로선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거대한 경제규모를 고려한다면, 중국정부는 정책적 차원에서라도 취사선택보다는 홍콩과 상하이, 양자를 모두 살리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홍콩과 상하이는 단기적으로 상호경쟁보다는 상호보완관계로 발전해갈 가능성이 보다 크다. 즉, 과거 중국의 유일한 관문역할을 해온 홍콩은 앞으로 중국의 남대문 역할을 담당할 것이고 상하이는 중국의 동대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도 홍콩은 중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무역 및 금융센터로 기능하고 상하이는 국내 물류와 자금시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싱가포르의 경우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수출 및 투자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산업구조 및 지리적 요인에 따른 중국과의 연계성이 크지 않아 중국비즈니스의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아세안블록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가 정식으로 창설되면 싱가포르는 동남아지역의 확고한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돼 중국의존도가 높은 홍콩과는 시장분할관계를 형성할 전망이다.

결국, ‘중국의 WTO 가입’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홍콩 추월論’은 그 타당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기업들의 중국진출도 ‘추월論’에 따르기 보다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역할論’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31) 수심 15미터 이상의 심수항이 없다는 것은 상하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상하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상하이시 난후이(南匯)와 浙江省 닝뽀(寧波)시를 전장 100킬로미터의 해양대교(세계 최대규모)로 연결하고 그 중간 해역에 東方 深水港을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공사기간만 무려 1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중단기적으로는 상하이의 물류적체 현상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국의 WTO 가입이후 ‘홍콩-상하이’ 및 ‘홍콩-싱가포르’의 관계는 아래 [표 2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24] '홍콩 VS 상하이', '홍콩 VS 싱가포르' 관계발전 전망

관 계 성 격	홍콩 VS 상하이 상호보완관계	홍콩 VS 싱가포르 시장분할관계
향후 관계 발전 전망	○ 상하이는 중국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외국기업 진출확대로 중국의 금융·물류·비즈니스 센터로 급성장중 ○ 단기적으로 홍콩주재 일부 다국적기업의 상하이 이전 예상 - 인프라 미비 및 위안화 자유 태환 불능으로 국제 금융·무역 센터로 등장할 가능성 미미 - 외국 중소기업은 홍콩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홍콩의 기능을 대체하기보다는 홍콩과의 역할 분담 전망 - 홍콩은 국제 무역·금융센터, 상하이는 국내 물류·자금시장의 역할담당 전망	○ 싱가포르는 최근 정부정책에 힘입어 국제 금융 및 비즈니스 센터로 급부상하면서 홍콩의 국제위상을 위협 ○ 단기적으로 동남아 업무비중이 큰 일부 홍콩주재 다국적기업의 싱가포르 이전 가능성 - 중국시장진출을 원하는 기업의 싱가포르 이전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전역의 시장확대와 아세안 블록화 움직임에 따라 홍콩과의 직접 경쟁 보다는 홍콩은 중국을, 싱가포르는 동남아 시장을 분할할 가능성이 보다 클 것으로 전망

나. 지역별 활용방안

(1) 홍콩

홍콩 중계무역기능 최대한 활용

홍콩의 중계무역기능은 고도의 소싱능력과 상품전문지식, 중국내 상맥(商脈)을 겸비하고 있어 중국의 WTO가입이후 단기적으로는 홍콩의 중계무역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중장기적으로도 상당기간 존속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은 홍콩의 중계무역업계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해 능력있는 해외상품 공급선 확보 및 중국내 유통망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음에 주목해 신규 유력 중계무역상 발굴 및 이들과의 연계강화에 노력해야 하겠다.

홍콩무역관 조사결과, 중계무역상을 통한 대중국 수출이 유망한 품목은 ▷전기전자 제품과 부품류 ▷보일러·기계류 ▷플라스틱류·화학제품 ▷게임소프트웨어 ▷시계류 ▷전화기·팩스기 ▷음료·주류 등으로 파악된다.

☞ 유망품목은 홍콩한국무역관의 전략조사 보고서 “홍콩 재수출시장을 꼭 잡아라”(51 53쪽) 참조. ☞ 다운로드 : www.kotra.or.kr

홍콩 및 歐美 중견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방안 모색

중국사정에 밝은 홍콩기업과 상품의 특성 및 기술함량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전략적 제휴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특히, 홍콩기업들이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전기전자부문이 유망하다.

중저급 전기전자제품은 기술과 생산설비는 물론, 연구개발(R&D)부문 일체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홍콩기업들과의 공동 생산-공동 판매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겠다. 반도체 등 고급 기술제품은 국내에 R&D 기능을 유지한 채 생산 및 판매거점은 중국으로 이전하고 유통망을 보유한 홍콩기업이 현지판매를 담당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을 앞두고 최근 광둥성내 대만기업들은 화동지역으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³²⁾ 중국거점 마련을 원하는 歐美기업들의 홍콩진출이 크게 늘고 있어 歐美 중견기업들과의 중국 공동진출 가능성도 모색해야 하겠다.

珠江三角洲 진출 확대위한 교두보로 활용

홍콩과 선전(深圳), 둥관(東莞), 중산(中山), 광저우(廣州) 등 광둥성 주강삼각주의 주요 도시들은 경제일체화가 상당히 진전돼 있다. 이 지역은 각기 산업/업종별 특색을 보유하고 있어 상하이 인근의 長江삼각주처럼 지역보호주의가 강하지 않다. 무엇보다, 홍콩은 주강삼각주내 대부분 거점도시의 소싱센터 및 후방지원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홍콩의 코디네이터(coordinator)기능을 중심으로 이 지역내 생산과 시장일체화를 기할 수 있다.

경공업제품이면서 고급 수입원자재 사용비율이 높은 가공무역업 투자라면 상하이를 축으로 하는 華東경제권의 長江三角洲보다는 홍콩을 핵심으로 한 珠江三角洲 일대의 경영환경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또한, IT 산업의 경우, 상하이도 IT 분야를 집중육성 산업으로 삼고 있지만 현지 제품생산여건에서는 아직 주강삼각주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PC생산을 일례로 들면, 둥관과 선전을 중심으로 모든 부품을 반경 60킬로미터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양호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 홍콩을 거점으로 광저우 등지로의 투자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는 업종으로는 광저우시의 집중 육성분야인 자동차 및 그 부품, 의약, 목재가공, 소프트웨어, 광전자산업, 환경보호산업 등이 있다.

중국정보 수집센터로 활용

중국은 WTO 가입을 전후해 각종 법적·제도적 개혁을 강화하고 있어 핵심 경제정보 수집거점으로서의 홍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홍콩은 중국내에선 수집이 어려운 각종 정보가 신속히 파악되고 있고 특히, 가공무역정책 관련 정보는 중국전역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2) 최근 광둥성정부 대만판사처에 따르면, 약 12,000개에 달하는 광둥성내 대만기업중 일부가 복건·절강·강소성 등지로 이전하고 있다. 대만기업들의 화동지역 이전 움직임은 중-대만간 '小3通' 시작에 따른 기대감 확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 싱가포르

앞서 지적한 것 처럼, 싱가포르는 중국과의 직접 연계성이 크지 않아 싱가포르를 활용한 중국진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33)

다만, 앞으로 중국에는 경쟁력을 갖춘 각국 기업들이 모여드는 반면, 싱가포르의 배후 생산기지인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는 저급기술제품의 생산기지로 특징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세안블록 형성이후엔 이 지역내 관세감면 등의 이점이 있음을 고려해 국내 저급생산라인을 동남아로 이전하고 동남아시아의 코디네이터(coordinator)로서의 싱가포르 활용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생산라인 이전시 최우선 고려요소는 최근 싱가포르의 대동남아 재수출이 증가하는 품목과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3) 상하이

高부가가치 위주의 진출전략 수립

상하이와 江蘇·浙江省 등 인근지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산업 및 소비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어 종래와 같은 재고품 수출 또는 사양산업 이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첨단제품(산업)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야 하겠다.

33) 이 점에 대해서는 싱가포르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 2001년 1월말 홍콩을 방문한 李顯龍 싱가포르 부총리<李光耀 전총리의 장남>는 홍콩의 중국어 매체들과 가진 회견에서 “홍콩과 싱가포르는 결코 숙명의 라이벌 관계<deadly rivalry>가 아니다. 홍콩이 중국과 동북아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동남아지역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홍콩과는 달리) 우리에게 중국이라는 배후지역이 없다. 싱가포르는 개별 국가와의 쌍무자유무협정 체결에 보다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인도시장 진출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싱가포르 기업들의 중국관련 사업은 전적으로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차원에서는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장려하는 특별한 정책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2 3년새 한국의 대상하이 수출중 IC 등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음이 이를 반영해주고 있다. 기타 품목에 있어, 전자재 등은 홍콩을 경유하는 선전-광저우 루트보다 상하이 루트로 진출하는 것이 보다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투자에 있어서는 상하이의 집중육성분야인 정보, 금융, 무역, 자동차, 기계설비,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진출확대가 요청된다. 또, 상하이 등 화동 지역은 화남지역보다 대형 프로젝트가 많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통시장 진출강화

상하이는 1990년 광저우(廣州), 선전(深圳)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통시장 개방에 나섰지만 최근 상하이의 유통업계가 화남권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유통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에이전트·수입업체 중심의 원부자재 수출구조를 탈피해 소비재중심의 유통분야에 적극 진출해야 하겠다.

화리엔(華聯), 카르푸, 매트로 등 중국 및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거나 현지 TV 홈쇼핑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대기업 차원에서 현지 유통망을 구축하고 중소기업들은 납품하는 협력체제도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전시회 참가확대

상하이에선 연간 약 170회의 국제전시회와 국제회의가 개최되며 특히, 華東교역회와 上海교역회는 화동지역 전역의 바이어를 접촉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인 만큼, 상하이지역 전시회참가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야 하겠다.

장기적 관점에서 서부지역 진출거점으로 활용

홍콩기업들이 서부내륙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하이는 중국정부가 서부내륙지역을 개발하는 거점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부내륙 진출가능성을 타진중인 기업이라면 화남지역보다는 상하이 등 화동지역에 우선적으로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인다. <끝>

부 록 : 다국적기업의 중국진출 사례

(1) AIG(보험) : 상하이 거점 + 홍콩중심의 인력관리 시스템

보험 및 투자전문 다국적기업인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는 상하이를 거점으로 중국영업을 하면서 직원교육 등 인력관리시스템은 홍콩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다. 34)

AIG는 세계 130여개 국가와 지역의 영업망에 근무하는 직원 수만 4만명이고 '99년 매출이 406억 달러, 2000년 11월말 현재 자산총액이 2,146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금융기관이다. 뉴욕, 런던, 파리, 스위스, 토오쿄오 등 세계 주요 증시에 상장돼 있고 최근엔 현대증권 계열사 인수에 나서고 북한 내 소비재분야 투자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다.

AIG는 생명보험업을 하는 AIA(American International Assurance Co.,Ltd.)와 기타 보험업을 하는 AIU(AIU Insurance Co.)등 2개 계열사를 중심으로 중국진출에 나섰다. 35) 중국 보험시장이 아직 미개방된 관계로 자회사들만 보험영업을 하고 AIG는 상하이 쇼핑센터 건설('89년) 등과 같은 투자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말 현재까지 외국기업에 대해 전국적으로 13건의 보험업 영업허가를 내주었는데 이 중 6건을 AIG가 가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독자기업으로써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AIA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Standard & Poors)로 부터 AAA등급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탄탄하다.

34) AIG는 1919년 상하이에서 창립된 후 '31년 상하이에 友邦人壽保險公司(Aisa Life Insurance Co.)를 설립하고 중국에선 최초로 중국인대상 생명보험업에 나선 기록을 갖고 있어 미국기업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중국에 깊게 뿌리내린 경우다.

35) 홍콩에 본사가 있는 AIA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10만명의 보험설계사를 두고 있다. AIA는 '92년 상하이에 지사를 세워 상하이시민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업무를 시작했고 '95년 광저우(廣州)지사 개설에 이어 99년에는 광둥성 선전(深圳), 푸산(佛山) 등지로 지사망을 확대했다.

AIU의 본사는 뉴욕에 있으나 동남아·중화권 지역본부는 홍콩에 두고 있다. AIU는 '92년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후 상하이지역 외국인 합자기업 및 외국기관을 대상으로 보험업무를 하고 있다. AIU 역시 '95년에 광저우(廣州)지사를 시작으로 '99년에는 광둥성 선전(深圳), 푸산(佛山) 등지로 지사망을 확대했다. AIU는 현재 상하이에만 약 6천명의 보험설계사를 두고 있고 광저우 3천명, 선전 4백명 등 전국적으로 1만명 내외의 보험설계사를 고용하고 있다.

AIG의 중국진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의 현행 법령을 감안해 상하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인력관리시스템은 국제금융센터인 홍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즉, 홍콩인 전문가를 중국 현지 인력교육센터의 책임자로 고용하고 이와는 별도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홍콩에서 일정기간 교육 이수후 중국 현장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AIG는 기업의 뿌리를 상하이에 두고 있는 관계로 전통적으로 상하이 정부와의 각별한 관계가 유지하고 있어 중국 중앙정부가 상하이를 금융개방 시범도시로 지정한 이후 각종 직간접적 혜택을 받았다. [표 25] 참조

[표 25] AIG의 중국진출 현황

성공 요인	○ 상하이 정부와의 특수 관계 - 1919년 상해에서 창립 - AIG 회장이 상하이시장 기업인자문회의 주석(의장), 베이징시 경제고문 등을 역임, 중국정부와 관계 돈독 ○ 홍콩중심의 인력교육 시스템 - 중국 사정에 익숙한 홍콩인을 중국내 인력교육센터 책임자로 고용 - 중국인 근무인력은 홍콩내 인력센터에서 교육이수후 중국내 현장에 배치 ○ AIA 보험설계사 10만명 고용 등 인력자원 풍부 ○ 직원에 대한 성과급 실시
장애 요인	○ 보험시장에 대한 외자진출 제한 - 중국은 WTO 가입후 5년에 걸쳐 보험시장 개방 방침 ○ 중국인들의 보험의식 미성숙
경쟁 상황	○ 중국보험회사와의 경쟁격화 우려
향후 목표	○ 중국인들의 보험의식 제고 ○ 잠재고객 집중공략 ○ 각종 新보험상품 도입으로 중국내 영업규모 확대

(2) CALTEX(석유류 소매) : 남부지역 거점 + 홍콩인 관리자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 시작이후 각종 품목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일부 석유제품과 유류창고의 경우는 품귀현상마저 보였다.

CALTEX의 중국진출은 이 처럼 석유제품 공급부족이 심화되던 '82년부터 시작됐다. '83년에는 중국 석유회사와 협약을 체결해 홍콩을 거쳐 선전(深圳)으로 진출하고 이어, 주하이(珠海), 판위(番禺), 산터우(汕頭), 둥관(東莞) 등 주강삼각지 핵심도시와 상하이, 산둥 등으로 까지 영업범위를 넓혀갔다.

CALTEX의 중국내 영업은 석유소매와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석유소매부문에서는 현재 중국내 47개 주유소(남부에 41개, 북부에 6개)에서 무연휘발유, 디젤유 등을 판매하고 있고 서비스분야에서는 유류창고 건설, 자동차용품 편의점(인테리어 및 점점)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CALTEX의 중국진출에서 나타난 업무관리상의 특징으로는 ▷ 중국내 각 영업소의 운영 및 중국인 직원교육은 홍콩인 관리자가 담당 ▷ 직원에 대한 상시교육 시스템으로 인한 서비스체질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표 26]참조

[표 26] CALTEX의 중국진출 현황

성공 요인	○ CALTEX의 세계적 브랜드 이미지 및 선진관리기법 ○ 목표시장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전략 마련 ○ 고객제일주의 모토 실현
경영 전략	○ 품질·서비스 제일주의를 경영이념으로 설정 ○ 경제잠재력있는 지역에 판매망 집중 확대 ○ 중국업체와 동등한 가격설정으로 경쟁력 유지노력
장애 요인	○ 중국정부의 잦은 정책변경으로 경영곤란 ○ 석유원료 코스트 통제 불가능으로 경쟁력 약화 우려 (석유원료는 중국 국영기업이 공급) ○ 중국업체의 경쟁력 향상
향후 목표	○ 자동차용품 편의점 지속 확대 ○ 직원에 대한 고객제일주의 교육강화 ○ 중국의 WTO 가입후 석유류 정책이 안정되면 기업 장기발전 계획 마련

(3) KODAK(필름소매, 현상) : 1927년 상하이 진출

KODAK도 이미 1927년 상하이에서 영업을 시작해 벌써 70년이 넘는 중국 비즈니스 경험을 갖고 있고 현재 중국내 2개 생산공장에서 각각 일반 컬러 필름과 의료용 흑백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KODAK은 '99년 중국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53.8%로 21%의 FUJI를 크게 앞서고 있는데 2001년내에 중국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이 ISO14001인증을 획득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KODAK은 또, 上海電影電視集團公司和 공동으로 400만 달러를 투입, 상하이 중심가에 5층짜리 KODAK 영화관을 신축하고 2001년중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KODAK의 중국진출 사례에서는 장기적인 투자와 기술·경험 전수는 물론, 자선기부 활동으로 중국측의 호감을 획득한 점이 돋보인다. KODAK은 또, 현재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상-중-저급 품질의 각종 감광재료를 생산해 중국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소위 '전품목 합자계획'을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은 사업추진환경이 미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27] 참조

[표 27] KODAK의 중국진출 현황

성공 요인	○ KODAK의 세계적 브랜드 이미지 ○ 중국내 장기투자 및 기술·경험 전수, 학교·의료시설에 대한 자선기부 활동으로 중국측 호감획득 ○ 정부부처, 세무국,公安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 영업
장애 요인	○ 시장점유율 확대위한 '전품목 합자계획' 추진환경 미비 ○ 중국내 경쟁력 단연 우위
경쟁 상황	- 뛰어난 브랜드 이미지, 품질보증 노력으로 소비자 선호도 수위 - 99년 중국시장 점유율 53.8%로 1위
향후 목표	○ 중국은 이미 KODAK의 세계 2위 시장으로 부상했고 중국의 WTO 가입후 영업규모 더욱 확대 계획 ○ 2001년내 중국생산 모든 제품의 ISO14001인증 획득 ○ 유력 IT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로 디지털영상물 시장개척 ○ 중국내 E-commerce 분야 진출희망

■